

만남

04

2018
통권 531호



특집 | 부활과 선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만남의 초점



저 눈빛 속에서, 저 몸짓 속에서, 저 하나됨 속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우리도 듣고 알리라’ (suara)는 함성이 울려 퍼진다.

- 지난 2월 6일~15일, 인도네시아, 대학부 수아라팀 동계 단기선교지에서

만남

2018년 4월호 통권 531호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발행 2018. 4.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영근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교회표어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고전 14:33상)

차
례

이달의 말씀 02 · 예루살렘을 사랑합시다! | 김운성

김운성 목사 위임부임 인터뷰 04 ·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 조성일·박현옥·류정현

특집 부활과 선교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11 · 부활과 복음통일 | 한현수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14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빛 무덤이 주는 선교적 메시지 | 최승도

신학자와 나누는 대화

17 · 한국 선교역사에 남긴 피터스 목사의 발자취를 찾다 | 박준서



영락지금 20 · 미래의 청년들, 영락의 청소년을 양육하는 두 남자
| 우대권·목진경·오승현

24 · 특별한 2월 고등부 졸업식 | 최윤미

24 · 친양대를 서는 날 정말 행복했다 | 김유빈

26 · 나를 일으키는 큰 손, 고등부 나의 제자들 | 안선아



아름다운 선교동역 28 · 복음의 동지였던 한경직과 빌리 그레이엄을 회고하다 | 김한수
31 · 믿음의 선교 동역자, 한경직과 빌리 그레이엄 | 전춘희
33 · 이웃과 시대의 아픔에 복음으로 답하라! | 김응신
세계선교 36 · 땅끝에서 만난 부활의 아침 | 정연수
국내선교 39 · 시대와 사람을 품는 영락교회 문화선교 | 이기열



문화광장 42 ·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 최상규
44 · <황무지>에서 진정한 부활 소망을 읽는다 | 이명섭
47 · 4월의 영락영화
영락의 울타리 48 · 잘 섭기겠습니다 신임 부목사 부임 인터뷰



사랑의 겨자씨 56 · 봉사 기쁨과 형제 섭김 | 박진현

교회소식 58 · 김운성 목사 위임예식 등

64 · 새가족 환영, 세례 입교 축하 / 목회력

66 · 영락역사자료

야곱의 우물가 67 ·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독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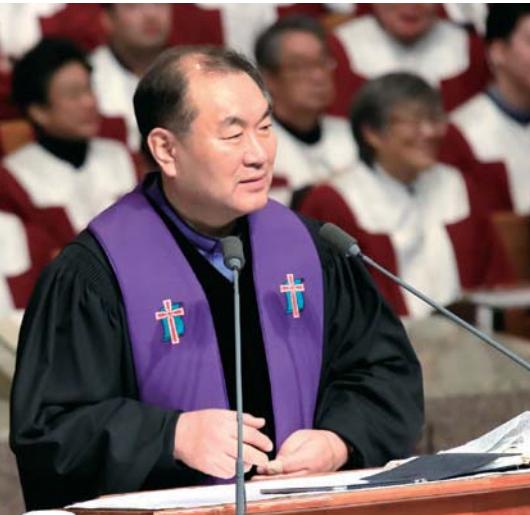
68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화보 69 · 야곱의 시대를 열어가다

표지설명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로
이행하는 길,
그 도상에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십자가의 완성을
사진으로 담았다.



김운성 위임목사

예루살렘을 사랑합시다!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한 도시가 있다면 아마도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또 ‘평화의 도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평화롭지 못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주인이 바뀐 것이 스무 번이 넘고, 도시 전체가 황폐화될 정도로 파괴된 것이 열 번이 넘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여전히 세계의 화약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이슬람교도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습니다. 일찍 이 예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루살렘을 품으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행 1:4)”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이 명령이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대해 큰 거부

감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시골 변방이며, 이방인의 지역으로 무시 받던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유대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정겹게 여기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꺼리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새로 생겼는데, 그것은 그들이 사랑하며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믿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들을 좌절시켰고,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희끄무레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 건물들,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및 바리새인 등 모두가 그들의 적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을 보기만 해도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

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도망했고, 그 막연한 두려움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했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고 하는 중이었으므로 그들은 남겨질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시 긴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긋지긋한 원수들이 여전히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루 속히 예루살렘을 벗어나 정든 갈릴리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복음이 땅 끝으로 퍼져가는 출발점으로 정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예루살렘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현재의 목회지가 기회만 있으면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불황에 허덕이는 사업가에게는 회사가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가난과 불화에 지친 가정주부에게는 가정이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자체가 정리하고 싶은 예루살렘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어려움 속에서 생애 자체를 끝내는 자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늘 떠나 버리고 싶은,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가거나, 현재를 포기하고 싶은 충

동을 받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충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최악의 장소, 최악의 조건이지만,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인 가정, 일터, 교회 등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위대한 삶의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멋진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방언이 이루어졌고, 최초의 전도 집회가 열렸고(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최초의 이적(성전 미문의 앉은뱅이 장애인이 일어난 일)이 일어났으며,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장소를 가장 위대한 복음의 현장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예루살렘은 그 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예루살렘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현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우리를 도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 속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예루살렘들이 위대한 성지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 다 같이 각자의 예루살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만남**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만남』편집위원회를 반갑게 맞이하는 김운성 위임목사(왼쪽부터 조성일 집사, 김운성 위임목사, 박현우 권사, 류정현 청년).

지난 2월 28일 「만남」 편집위원 조성일 집사, 박현옥 권사, 류정현 청년이 김운성 위임목사를 만났다. 이번 인터뷰는 「영락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조명하는 자리였다. 다음 인터뷰는 「영락교회 6대 위임목사로서의 목회 방향과 사역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락교회 성도들과 「만남」 독자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만남」은 오랜 세월 동안 영락교회 성도들이 지면을 통해 서로의 마음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만남의 장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실어서, 성도들에게 큰 기쁨 많이 주시기 바라고 「만남」을 애독하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청년층에 속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들과 소통은 잘 되시는지요?

저희 가족은 저와 아내 그리고 딸 셋에 아들 하나 이렇게 6명입니다. 맏이는 올해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고, 둘째는 아들인데 이번에 박사과정 마쳤어요. 셋째는 한동대에 다니고, 막내는 보성여고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과 아주 잘 지냅니다. 가족끼리 SNS를 통해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하루에도 몇 번씩 소식을 주고받아요. 하루는 딸애가 “아빠 지금 우리 집에서 하는 얘기, 다른 집에서는 안하는 얘기야”라고 해서 ‘대화가 없는 가정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원하게 소통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로 부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땅끝교회 교인들에게 안나처럼 믿음

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하신 설교는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을 때 저는 부산에 남게 해달라거나 서울로 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기도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땅끝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해해주셨고, 영락교회 청빙위원들과 땅끝교회 장로님들의 두 차례에 걸친 만남도 그 과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로 오는 건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내가 가면 땅끝교회는 누가 와서 목회를 하나?’ 그 문제가 남았습니다. 장로님들도 제가 28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목사를 청빙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믿었어요. 딱 한 분을 추천 받았는데 공동의회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18일부터 설교하고, 그 목사님도 같은 18일부터 땅끝교회에서 설교하셨어요.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두 교회가 이렇게 꼭 맞는 경우는 한국 교회에서 아주 드문 일입니다. 톱니바퀴가 딱 맞게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져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빈틈도 없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려보내시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장학금으로 공부 마쳐… 함께 식사하며 격려하는 잔잔한 정을 나눕시다”

는구나’하는 신비로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청빙이 결정되고 나서 땅끝교회 성도들과 길게 얘기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편지를 써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한 분 한 분씩 다 드렸습니다. 편지내용은 “여러분이 나를 서울로 보내주신 건 파송하는 거다. 내가 서울 가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동안 목회 잘하고,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다시 부산에 내려와서 함께 돼지국밥 먹으러 가자”고 써서 드렸어요. 그 편지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땅끝교회 성도들이 요즘 영락교회 홈페이지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소식을 접한다고 해요. 영락교회는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종종 함께 모여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땅끝교회 성도들이 마음은 많이 섭섭하지만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영락교회와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영락교회는 제가 태어난 교회입니다. 중구 충무로 2가 16번지가 제 본적인데 영락교회 담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동생을 낳으시던 날, 생모께서 돌아가셔서 영락교회에서 장례를 치러 주셨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다섯 살 정도 까지 영락교회에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영등포로 이사를 갔고, 아는 전도사님을 따라 도림교회로 옮겼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장학위원 장로님들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평

소에 뵙기도 어려운 한경직 목사님과 박조준 목사님 같은 분들과 일 년에 몇 차례씩 식사를 같이 했어요. 꼭 오셨죠. 한경직 목사님이 손수 가시를 빌라서 생선을 숟가락 위에 얹어 주시기도 하고, 덕담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장학금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마주 앉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많은 격려가 됐습니다. 요즘은 학교에 장학금만 전달한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다시 하자고 하셨어요.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은 엄청난 프로젝트를 통해서라기보다 잔잔한 정을 나누는 데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주일 설교하신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성도들에게 느끼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영락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무척 사랑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약간 우려가 되기도 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혹시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게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요즘은 뜨는 목사님이 있다고 알려지면 쏠림 현상이 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풍토 속에서 영락교회 어르신들은 교회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초지일관 하시니까, 그것을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다른 교회가 못 가진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르신들이 많다는 건 아브라함이 많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어른들만 많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는 거죠. 축복은 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죠. 어르신들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해석한다면, 젊은 분들은 야곱이 되어야겠지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아들 열둘을 낳아서 민족이 된 것처럼, 영락교회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결 감사하면서 점차 아이 열둘을 낳는 야곱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70대 이상 어른들이 많다고 가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인 40~50대를 많이 채워주시면 그 다음세대인 10~20대가 또 채워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 아랫세대를 더 채워주셔서 70대 이상은 아브라함의 복을, 40~50대는 이삭의 복을, 10~20대는 야곱의 복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아브라함이 많은 교회…
아이 열둘을 낳는 야곱시대로 갑시다”

땅끝교회는 청년세대가 전 교인의 25%가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영락교회를 포함해서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몇 해 전에 부산일보에서 24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부산의 16개 군·구 중에서 영도구는 18개 항목에서 최하위에 속했다고 합니다. 고학력 인구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의 떠나다 보니 고령화가 될 수밖에 없고, 지방선거 때 보니까 교회가 위치한 남항동은 65세 이상인 주민이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노인이 많았죠. 게다가 교인의 90% 이상은 모두 영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멀리 이사를 갔던 사람도 교회를 다시 찾아오고, 새 가족이 등록을 하는데 영도 바깥 지역에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끝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교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운대에서 오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도 점차 늘어났어요.

땅끝교회는 30대 이하는 남녀가 따로 모이지 않고 가족모임으로 모입니다. 공휴일에는 교역자가 주관해서 신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 키우는 고민도 함께 나누고 서로 어울리곤 해요.

다섯 주가 있는 주일에는 청년들과 함께 청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년부 예배 때 설교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욕구가 다양해서 꼭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해야만 청년들이 늘어난다기보다는 꾸준히 관계를 쌓으면서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30~40대를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특화된 집회를 열기도 했고, 젊은이들은 당구모임도 했어요.



“SNS도 거룩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 청년 뿐 아니라 전 세대에서 전도매체로, 성도간의 교제도구로 활용합시다”

저는 성경공부 함께하고 식사도 같이하고 적극 후원했습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본질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만은 붙들어야 하고, 다만 복음에 어떻게 옷을 입히느냐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본질만 해치지 않는다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땅끝교회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복음성가도 많이 불렀습니다. 설교내용과 꼭 맞는 걸 찾다 보면, 찬송가보다 복음성가가 더 잘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축도가 끝나면 드럼을 치면서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독청년들에게도 휴대폰과 SNS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목사님은 이러한 디지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저도 SNS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성경공부 그룹을 운영할 때, 그룹별로 구성원 전체가 가입한 그룹 방에 각자의 기도제목을 올리면 서로 중보기도도 하고, 그 공간에서 숙제를 내주기도 했어요. **안 좋은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그 공간을 거룩한 장으로**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회가 끝나면 기도회 영상을 신청하는 성도들한테 SNS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오전 6시에 기도회가 끝나면 오전 6시 반 정도에는 교인들에게 전송이 되는 거죠. 새벽기도회에 못 나온 성도들은 아침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그 영상을 보면서 가정예배를 드린 뒤 출근하거나 학교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매체를 교회가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교를 퍼 나르기도 좋잖아요. 교인들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도 시스템만 가능하다면 시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기능 때문에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 활용**해서 전도매체로 활용하고, 성도 간의 교제에도 좋은 도구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교회에 ‘기독교미술관’을 설치하셨고, ‘평화통일을 꿈꾸며… 아름다운 북한선교전’ 같은 전시회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펼쳐 오신 기독문화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세요.

미술을 전공하신 성도들이 교회에 그림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해 왔습니다. 화랑은 아니었지만, 적당한 공간을 확보해서 그림을 전시하고, 주일에는 그 옆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작은 문화공간으로 시작했어요. 그 지역 화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작품 순환이 잘 됐습니다. 북한의 화가가 그린 동양화, 수묵화를 비롯해 지하교회 성도가 만든십자가 모양의십자수 같은 작품도 전시했는데, 저도 북한선교에 관심이 많고 관련이 있어서

몇몇 작품은 제가 수집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부산의 규모 있는 교회로 확산되면서 순환 전시도 하게 됐습니다.

부임하신 후 첫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평소에 설교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첫 설교는 청빙 얘기가 오가며 가닥이 잡힐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적응하는 과정이지만 영락교회 성도들도 저한테 적응하느라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단은 좀 낯설었지만, 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말투로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웃으실 줄 몰랐어요. 성도들이 정말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편안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설교 준비할 때 기도하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알아듣기 쉽게 전하게 해주세요!”, “은혜가 되도록 전하게 해주세요!”, “변화될 수 있도록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왜곡되면 안 되니까요.

사실 저는 설교하기 참 좋아합니다. 설교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설교를 지금보다 좀 길게 했습니다. 영락교회는 설교를 짧게 한다고 하셔서 “예배시간을 좀 늘리죠, 뭐” 제가 그랬어요.

설교가 소통이니까 목사가 가슴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이해를 돋기 위해 우회적인 얘기도 필요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려면 마음을 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락교회는 설교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부분에 시간을 쓰기에 아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서로 긴장하고 있으면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오니까 설교할 때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가장 행복한 심령으로 전하게 해주시고, 성도들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끝으로 목사님께서 영락의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영락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어슴푸레하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80주년이 다가오는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컬링 팀이 감동을 준 것처럼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영락교회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기도하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밝은 표정으로 환영해 주셔서 마음이 참 기쁩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특집

부활과 선교

•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부활과 복음통일

•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빈 무덤이 주는 선교적 메시지

• 신학자와 나누는 대화
한국 선교역사에 남긴
피터스 목사 발자취를 찾다

부활과 복음통일



한현수 목사
동대문·중랑교구
북한선교부
목회행정

장면 하나. 2천여 년 전 예수의 고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유대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귀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복음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절대시하는 율법을 부정하는 듯한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나뭇가지를 흔드는 가운데 마치 메시아처럼 입성했던 예수, 자신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신성모독적인 예언을 하는 예수, 이런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을 드나들던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라



는 치명적인 죄명을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힘없이 죽어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온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드디어 눈엣가시 같았던 예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경한 말을 일삼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며 거짓 복음을 전하던 예수는 이제 죽었다. 다시 우리 세상이 왔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사단도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장면 둘. 2018년 한반도의 정세

북한은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한 이후,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2009년 5월에 2차, 2013년 2월에 3차, 2016년 1월에 4차, 2016년 9월에 5차,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은 2012년부터 핵실험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미국과 서방국들의 계속된 제재 속에서도 굶주리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로지 핵무기 완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렇게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핵무기 보유국이 되기만 하면, 세계가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강대국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힘과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국내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완성한 단계까지 이른 것 같다고 말합니다. 6차 핵실험을 한 후, 북한은 “드디어 됐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고 자축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악의 권세를 이길 힘은 오직 복음뿐

그런데 세계정세가 과연 북한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현실은 그들의 바람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엔과 세계 각국들은 하나같이 북한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 오랜 우방국이자 형제국가였던 중국까지 제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과 피폐한 생활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핵무기 개발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섰지만, 그들의 꿈과 기대는 잘못된 것이었고, 오히려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당하는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핵무기만 완성하면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고, 자신들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꺾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4차, 5차, 6차 핵실험을 강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말해왔고,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정세가 위험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통일은 핵무기 완성을 통해 힘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되는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살롬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살롬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2천여 년 전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십자가에서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북핵 위기에 처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주변 열강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 나라 내 조국 한반도에도 진정한 살롬의 날이 하루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북한 땅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감격스런 복음통일의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빈 무덤이 주는 선교적 메시지



최승도 목사
고양·파주교구
선교부

영락교회를 생각할 때 베다니전도교회를 회고하게 된다. 전도하는 교회에서 발전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73년 동안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는 영락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회라는 점이 감사하다.

교회의 정의, 선교적 교회?

교회를 정의할 때 선교를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어쩌면 최근 ‘선교적 교회’라고 표현되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생성된 명칭은 그 의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선교 자체라는 본질적 의미를 되새길 때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동어(同語)반복이 되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선교의 열의가 식어가고 교회의 본질인 선교의 사명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뚜렷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란?

신·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고 증명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그 내용으로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확실성을 온몸으로 전하는 것이다.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시키는 것이 선교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 때문에 전도의 가장 핵심인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창세 때부터 21세기까지 변함 없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오직 더 확고히 할 뿐이다. 하지만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대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교로 이 땅 대한민국에 부흥의 씨앗이 심겨지고 현재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한국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나라와 경제도 꾸준히 성장하여 교회와 국가는 이른바 ‘구원과 상승(redemption and lift)’을 경험했다. 하지만 4세기 기독교 국가가 형성된 이후 선교는 사실상 도움이 절실한 미전도 국가에 복음을 전파할 때 정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사실

을 우리는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문화적 우월주의와 경제적 부유함을 내세워 미전도 종족들을 미개인으로 다루었다. 문화를 정복하고 그들의 고유한 전통과 특징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서구화시켜 버렸던 것이 다소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유산들이 모두 미신이나 거추장스러운 미개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에 1907년 1월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외국 선교사들은 자신의 편견과 교만에 대해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조선시대에 전해졌던 복음이 서구우월주의에서 시작된 복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였다.

또한 한국 교회 내부적으로도 국가의 경제성장과 교회의 힘의 증가로 양적부흥과 승리주의 등, 힘으로 부터의 선교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힘과 강함으로부터의 선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복음의 변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선교의 방법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빈 무덤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선교 방법을 비우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필자가 2006년 이스라엘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예수 빈 무덤 기념교회'

전할 때 힘의 전도가 아니라, 혹은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등한 위치, 그들의 견지에서 접근하는 겸손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과거 전도와 선교는 '그들의 본능적인 욕구(what they want)'를 채워주고 세상의 갈급을 만족케 하는 선교였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그들의 궁극적인 필요(what they need)'를 하나님 관점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교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는 선교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3:1-10은 우리에게 선교는 무엇을 전해 주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숙고를 종식시킨다. 제 구시 기도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앉은뱅이의 세상적 갈급함을 채워주기에 대한 요청을 본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채워 주지 않고 그에게 궁극적 필요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다.

조금 더디지만 올바른 선교, 전도가 필요하다. 지금 까지 어떤 이는 자기과시적인 선교를, 어떤 이는 힘

의 전도를, 어떤 이는 돈의 힘으로 전도를 했다면 그 것은 마치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 같을 것이다. 그래서 설득되기 전에 그들을 힘으로 정복했다. 그들이 선택하기 전에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본능을 자극했다. 그들의 소중한 것을 인정함으로 접근하기보다 그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위협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우월적 힘은 필요치 않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보질것없는 빵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보여주기를 갈구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기본에 충실한 선교와 전도로 돌아가야 한다.

힘이 아닌 희생으로, 돈이 아닌 겸손함으로, 말이 아닌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세대의 요청사항임이 분명하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이다. 그 확신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그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희생과 겸손과 사랑으로 선교하도록 할 것이다. **만남**

한국 선교역사에 남긴 피터스 목사의 발자취를 찾다

최초 한국어 구약성경 번역자



박준서 교수
연세대 구약학 명예교수
피터스목사기념사업회 회장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최선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그런데 한국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성경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없다면 우리들은 모두 성경문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치 중세시대 유럽에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었던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들이 한글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준 분은 누구일까.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 (John Ross) 목사다. 1882년 그가 누가복음을 처음 번역했고, 5년 뒤 1887년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했다. 로스 목사가 신약성경을 번역한 곳은 중국 선양(瀋陽, 심양)에 있는 동관교회이다. 그곳에 로스 목사가 몇 명의 한국 청년들과 함께 신약성경을 번역했던 방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한국 교회는 경기도 용인에 로스 기념관을 건립해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언제 누가 구약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을까?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구약성경을 우리말로 최초 번역한 분은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Alexander Albert Pieters) 목사다. 한국 이름은 ‘피득’이다. 1895년 그가 조선 땅에 와서 3년 동안 우리말을 배워 시편을 번역한 것이 최초의 구약 번역이다. 피터스가 24세에 조선 땅에 와서 구약성경 한글번역사역에 주력하기까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피터스가 조선에 오기까지 결코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련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피터스는 1871년 제정 러시아 시대에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곳은 당시에는 러시아의 일부였으나 오늘날은 독립국가 우크라이나 지역이다.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으나 오늘날 드니프로(Dnipro)라는 곳에서 그는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 태어

났다. 이들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읽기 위해 히브리어 교육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피터스는 어려서부터 히브리어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어 시편과 기도문을 암송하며 자라났다. 어학에 특출한 재능을 타고난 그는 러시아어 외에도 히브리어, 희랍어,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이디시어(Yiddish, 독일어와 히브리어 합성어)까지 능통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9세기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극심했다. 더구나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극심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중고에 시달려야만 했다. 24세가 되었을 때 그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 나가사키까지 오게 되었다. 그곳에서 우연히 기독교 선교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말씀을 듣던 중 그는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경우 집안에서 쫓겨나고 모든 혈연관계가 단절된다. 기독교인이 된 그는 프룸킨(Frumkin)이라는 본래 유대인

이름을 쓸 수 없게 되었고, 그에게 세례를 준 선교사의 이름을 따라 피터스(Pieters)라고 개명했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할 당시 마침 일본에 미국성서공회의 총무가 와 있었다. 조선에 아직 구약성경이 번역되지 않았고 번역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성서공회 총무는 피터스 청년 소식을 듣고 설득해서 미국성서공회 소속의 권서(勸書)로 조선으로 파견했다. 만일 당시 그가 일본에 와 있지 않았더라면 피터스가 조선에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피터스는 1895년 조선에 온 후 먼저 와 있던 선교사들 사역을 도우면서 한국말을 배운 지 불과 3년 만에 구약 시편 중에서 62편을 골라 우리말로 번역했다. 이것이 최초 한글 구약번역이 되는 ‘시편촬요’이다. (‘촬요’라는 말은 ‘선집(選集)’이라는 뜻이다.) 읽어보면 우리말 운율에 잘 맞는 유려한 문체에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75장(‘주여 우리 무리를’)과 383장(‘눈을 들어 산을 보니’) 가사는 피터스가 시편 67편과 121편을 번역한 것이다.

시편촬요를 출간한 후 피터스는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신학공부를 시작했다. 1900년 미국에 유학하여 3년간 신학수업을 했고 목사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Alexander Albert Pieters)

안수를 받은 후 귀국해서 구약성경 번역에 전념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1910년 마침내 구약 성경 전체의 번역이 완성되었다. 그 이듬해 신구약 합본성경이 출간되어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로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구약성경 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번역성경을 개정하는 사역이 시작되었다. 피터스 목사는 이 위원회의 평생회원으로 위촉되어 구약성경 개정사역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다. 이 개정사역은 1938년에 끝을 맺었고, 그해에 개역성경전서가 출간되었다. 그 뒤로 고어체 문체를 바꾸고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1941년 피터스 목사는 70세가 되어 은퇴할 연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혈연관계가 단절된 그는 고향에 그를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 LA 근교 패서디나(Pasadena)에 있는 은퇴선교사 주거시설로 옮겨갔다. 한국을 떠난 후 그의 여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디에 묘소가 있는지조차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피터스 목사는 한국 교회에서 잊혀진 인물이 되었다.

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패서디나에 소재한 풀리신학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있었다. 평생토록 구약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가르쳐 온 필자로서는 구약 성경을 번역해 준 피터스 목사가 마지막 여생을 보냈던 패서디나에서 연구와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컸다. 그가 패서디나에서 별세했다면 그의 묘소도 틀림없이 그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컴퓨터 작업과



수소문 끝에 그 지역 공용묘지에 안장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찾아가보니 묘석들이 즐비하게 세워진 넓은 묘역 한편에 멀리서 보면 잔디와 잡초로 덮여 있어 묘역같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었다. 묘지 관리인은 바로 그곳에 피터스 목사 묘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막상 가보니 이름을 새겨놓은 작은 석판 위로 잔디와 잡초가 덮여 있어 쉽게 묘소를 찾을 수 없었다.

가까스로 피터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석판을 찾아냈다. 그 순간 묘소를 찾았다는 감격보다 탄식이 절로 나왔다.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준 은인의 묘소가 이렇게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다니… 부끄러움과 자괴감으로 그의 묘소 앞에서 오랫동안 머리를 들지 못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의 은인인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귀국한 후 필자는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분과 함께 '피터스목사기념사업회'를 만들었다. 한국 교회는 피터스 목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이룩한 공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영락교회 교우들이 피터스 목사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하는 기념사업에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만남

미래의 청년들, 영락의 청소년을 양육하는 두 남자

- 호산나찬양대 김기범, 하동균

매달 주님을 위해 영락을 섬기는 젊은이들을 만나보는 〈영락지금〉! 이번 4월은 중등부, 고등부 교사로 묵묵히 미래 청년들을 돌보고 있는 호산나찬양대의 두 훈남을 인터뷰했습니다. 영락에서 15년지기 우정을 쌓아온 두 남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 호산나 대원으로 섬기면서 중등부 교사를 맡고 있는 김기범입니다. 올해 대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동균 : 호산나 찬양대를 섬기고 있고, 교육부에서 고등부, 특히 특활부서인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하동균입니다. 식품업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를 섬길 때, 한 주간의 일정이 궁금합니다.

기범 : 공식적으로 토요일은 4시부터 6시까지 연습을 하고, 2월에 음악학교 등과 같은 행사가 있다면 끝난 이후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주일은 11시부터 30분 정도 백병원에서 병원찬양을 진행합니다. 앙상블은 11시 30분부터 연습하다가 12시부터는 다 같이 연습을 해서 1시까지 연습을 하는데요. 이 중간에는 찬양대 담당 목사님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고, 1시 15분부터 예배준비하고 1시 30분부터 4부예배 찬양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산나에서도 느끼는 바가 있나요?

기범 : 신입대원이 많이 없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모임을 가지면 계속 막내일 때가 있어요(웃음). 매번 만나는 사람만 만나서 같이 늙어가는 느낌?

동균 : 아무래도 호산나찬양대는 인원이 20대로 한정되어 있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들도 없어서 더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작년 광장에서의 홍보 덕분인지 전보다는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두 분은 중등부와 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해당 부서를 섬기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기범 : 앞으로 점점 바빠지고, 섬기기도 지금이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사양성반을 시작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느꼈던 은혜와 감동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중등부를 섬기게 됐습니다.

동균 : 저도 교사양성반을 수료했었는데, 다만 저는 아직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고등부에서 교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저는 늘 고등부 친구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돋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고등부를 계속 섬기면서 고등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에 남아 있도록 도와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 있었다면?

동균 : 고등부 수련회, 영고찬 음악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다들 공부하느라 바쁠텐데, 1박 혹은 2박씩 하는 행사에 늦게라도 꼭 참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학업에 갇혀 사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걸 교회에서 푸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신앙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범 : 중등부 친구들은 아직 어리다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중2병’과 같은 말로 중학생들을 정의하곤 하는데, 그런 모습은 굉장히 일부인 것 같습니다. 어른스러운 부분도 있고, 믿고 기다리면 먼저 깨우치고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겨울수련회 때는 모든 학생들이 핸드폰을 걷기로 했지만 꼭 내지 않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데 집회 끝나고 은혜를 받았는지 아이들이 직접 와서 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육박지르면서 “너 있는 거 다 알아! 어서 놔” 이런 것보다는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중등부, 고등부와 잘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동균 : 교사양성반에서 “가르치지 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고등부 시절을 생각해보면 선생님들께서 성경공부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공부보다는 선생님들과 대화한 것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고등부 친구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하고, 제가 아직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름을 외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범

기범 : 저도 중등부 교사로서 영성적인 부분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어울려 노는 것도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중심을 잡기가 조금은 어 려운데요, 친구들과 한 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다가도,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의 시선이 분 산되는 것이 느껴져서 덤덤한 척 하지만, 굉장히 등에 땀이 나기도 합니다. 요즘엔 너무 심오한 메시지 를 전달하기보다는 기도 시간이 조용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의 얘기나 어떻게 중등부 친구들에 대해 생각하는 지 전해줄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년층과 청년층 간에도 그런 자세가 통용되면 참 좋 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섬기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범 : 저희가 나름 교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저희를 부를 때 반말로 이름만 부르시는 선생님도 계 세요. 같은 선생님으로서 청년들도 존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부서별로 장소를 대관할 때 불 편함이 많아요.

동균 : 저도 동감하는 내용인데요. 장소 대관할 때 교육부, 행정처 두 부서를 오가다보니 체계도 잘 안 잡혀 있고, 조율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답답함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부서마다 연간 계획을 함께 나누고 장소 대관에 관해 협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 어요. 지금은 계속 장소 예약이 겹치고, 그래서 두 부서가 모두 섬김을 제대로 지속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 하거든요. 그럴 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존중했으면 합니다.



하동균



두 분은 지금 중등부와 고등부도 섬기고 있어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 교회에서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까요?

동균 : 대학에 들어가면서 친구들의 형편이 달라지다보니 흩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고등부 때까진 정말 열심히 잘 섬기던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20대가 되면 교회에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워요. 대학 입시라는 사회적인 요소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범 : 부모님들의 기독교적인 양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대학을 어디 갔는지가 중요시되다 보니까, 아이들 역시 대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홀히 해요.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도 대학 이름을 중요시하고, 대학 이름 때문에 부끄러움도 느끼더라고요. 중등부 친구들도 학원을 정말 많이 다니는데, 그러다보니 수련회 같은 교회 행사에 굳이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이 학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믿음이 굳건하면 힘든 상황이 올 때도 교회에 붙어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동균 : 젊은 교사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사를 하다보니 저를 맙아주셨던 선생님들이 아직도 혼자 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와 같은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워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범 : 정말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젊은 교회가 되길 바란다면, 중고등부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그 친구들이 우리 나이쯤 되었을 때 교회에서 더 큰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남**

기획 우대권 편집위원, 오승현·목진경 기자 사진 김태영 객원기자

특별한 2월 고등부 졸업식

지난 2월 25일(주일),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고등부 졸업식이 있었다. 대학부, 베드로부, 청년부로 첫발을 내딛는 100여 명의 고등부 졸업생들을 위해 특별히 박남진 장로(교육부 부장)는 축하 인사를 전하며 고등학교과정 교육의 중요성과 졸업생들의 신앙의 성장을 강조했다. 이날 졸업생들은 졸업의 상징인 스톨(Stole)을 어깨에 두르고 단상에 한 명씩 올라와 고등부 임현우 목사와 이종근부장 장로로부터 수료증을 받았다. 임 목사는 “자율이라는 해방구를 향해 졸업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따르며, 오직 십자가를 향한 소망과 믿음의 삶을 통해 기쁨의 삶이 되기를” 권면했다. 안선아 교사의 제자들에게 쓰는 편지 낭독과 130대 학생회장이었던 졸업생 대표 김지환 군의 고별사로 졸업생들은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드림홀을 나섰다. 영락 고등부는 2018년도부터 학교 학사 일정과 동일하게 2월 졸업, 3월 개학식에 맞추어 고등부 졸업 및 진급 시스템을 도입했다.

취재 최윤미 기자

66 찬양대를 서는 날 정말 행복했다

99



김유빈
대학부

처음 영락교회에 오게 된 것은 2학년 가을, 학교 친구 수현이를 따라 하루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처음 그날부터 이 교회를 계속 섬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전에는 교회를 매우 성실하게 나가기는 했지만 설교만 듣고 바로 집에 돌아오는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영락 고등부의 첫인상은 활기찼고 학생들이 많아서 함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에 은혜를 받아 영락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고등부 생활을 하며 나의 믿음도 점차 깊어갔다.

고등부 생활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활반 활동으로 영락 고등부 찬양대를 했다.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찬양대를 서는 날 까지 정말 행복했다.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의 책임감과 찬양을 하는 기쁨을 함께 느끼며 스스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두 번의 정기연주회에도 참여했고, 영고찬 MT에서는 대화를 많이 해보지 못했던 동생들, 선생님, 권사님과 한 조를 이루어 볼링도 치고 떡볶이도 먹으며 한층 가까워질 수 있었다. 찬양대 활동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사람들을 사귄 일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더불어 오랫동안 함께 신양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영고찬으로서의 활동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 소중하다.

더 많은 선교활동이나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해 다른 부서 친구들과는 많이 못 친해진 것이 조금 아쉽다. 대학부에 올라가서는 더 많은 친구들, 선배들과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교회의 많은 어른들이 우리 고3들이 고등부를 떠나서도 믿음생활을 잘 이어가야 한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나도 같은 생각이다.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라 약간은 설레기도, 또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대학부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분명히 더 새롭고 은혜로운 경험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그곳에서도 내가 필요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 이야기를 바란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3학년 졸업생들이 2월 말까지 고등부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 고등부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었다. 그래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추억이 가득한 고등부를 떠나는 발걸음이 더욱 무겁다. 지난 25일, 마지막 고등부 3학년 졸업 예배를 드렸다. 한 명씩 단상에 올라가 수료증도 받고 3년간의 사진들도 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우리를 돌봐주신 고마운 선생님들의 마지막 인사말도 감동이었다. 그렇게 아쉽지만 즐거웠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영락 고등부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했다.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 저희가 즐거운 교회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남**



66 나를 일으키는 큰 손, 고등부 나의 제자들 99



안선아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고등부 교사

지나온 3년은 너희를 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실로 스스로 인생을 걸어가는 첫걸음인 것 같기도 하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 된 첫 수련회에서 서먹하게 포크 댄스를 파트너 와 열심히 추던 새내기 고등학생 너희들 모습이 기억난다. 누구는 고심하여 특활반을 고르고, 누구는 이식줍기반으로 문화연구반으로 또 누구는 개인 시간이 없다며 바빠하던 기억도 난다. 함께했던 미디어 금식도, 새벽기도 이후 처음 듣게 된 마음 깊숙한 이야기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늘 하루도 빠짐없이 일찍 나와서 우리 반 자리를 알려주던 북두칠성같이 듬직한 세현이, 집이 먼데도 일찍 나와서 몇 달이고 헌금위원회를 하던 마음 착한 세준이, 학생회로 첫 수련회를 가서 손가락을 다쳐 가슴 철렁했던, 늘 열심히 사는 광국이 기억도 난다. 늘 단정한 지성이가 어느 날 공부할 시간을 더 갖겠다고 했을 때는 어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지. 하나님께서라면 어찌 하셨을까? 내가 힘들어 할 때처럼 기다려 주실 것 같았어. 그래서 우린 약속을 했다. 원하는 시간을 다 쓰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로.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약속대로 지성이는 교회로 돌아왔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지은아, 다른 반으로 보내줄까? 선생님이랑 지내는 것이 싫으니?” 끝까지 마음을 확인하지 못해 늘 안타까워서 혹시나 나와 지내는 것이 싫지나 않은지 2학년이 시작될 때 두렵지만 물어본 적이 있었지. 그런데 씩씩하게 “괜찮아요. 다른 반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이 좋아요”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울 뻔했다.

한 번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지 못한, 형제도 없었던 미성숙한 나에게 너희들은, 때때로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마다 너희들은, 내게 동아줄이 되어 주었고, 힘들어 내려놓고 싶을 때 나를 일으키는 큰 손이 되어 주었고, 돌아서고 싶을 때 돌아갈 고향 같은 길잡이가 되어 주었단다. 너희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마음을 쪼개서 조금이라도 기도해야 했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 부끄러운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아야만 했다.

너희들에게 다가올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치열할 것이다. 내가 그래왔듯이. 지난 3년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억처럼, 앞으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만 하고 우리는 절대 혼자 길을 나서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 속에, 그분과 함께,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지속되길 바란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으나 언제나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가고 싶구나. 각자의 지금 모습은 다르지만 지금의 한 시간이, 하루가 점처럼 모여서 선이 되고 길이 되겠지. 그 길에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자. 인생의 한 장을 닫고 또 여는 너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만남**



복음의 동지였던 한경직과 빌리 그레이엄을 회고하다

김장환 목사 인터뷰

한경직 목사와 함께 한국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사역을 함께 했던 미국의 복음선교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지난 2월 21일 별세했다. 두 분의 동역을 기리는 기사를 싣는다.



사진 극동방송 제공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중 한경직 목사와 그레이엄 목사가 나란히 앉아있다. 가운데가 김장환 목사.

“한국 기독교사에 남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초청 전도 집회는 한경직 목사님의 편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 8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 이사장실에서 만난 김장환(84) 목사는 한경직(1902~2000) 목사와 그레이엄(1918~2018) 목사의 인연 덕분에 1973년 전도 집회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3월 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엄수된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식에 참석해 외국 목사를 대표해 추모사를 하고 막 귀국한 길이었다.

“당시 한국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경제도 정치도 북한 문제도. 그럴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초청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미군 1개 사단보다 더 강력하다’면서요.” 문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초청 수락 여부였다. 김장환 목사는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 편지를 쓰시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1970년 11월 한 목사는 초청 편지를 썼다. “우리는 당신이 2주 동안 한국에서 집회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한국의 종교인들은 초교파적으로 모여 당신을 초청하는 데 만장일치로 결의 하였습니다.”

과연 한 목사의 편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레이엄 목사 측은 측근인 헨리 할리를 한국에 파견했다. 한경직 목사의 편지가 그레이엄 목사 마음을 움직인 데는 두 거인의 오랜 인연이 바탕이 됐다. 그레이엄 목사는 1951년 격렬한 전쟁 중 한국을 방문해 참전 미군병사들을 위로·격려했다. 이때 통역을 맡은 이가 한경직 목사였다. 이후로도 한 목사와 그레이엄 목사는 교류를 이어갔다. 한 목사는 1966년 그레이엄 목사의 베를린 집회에도 참여해 한국 집회를 요청했지만 당시에는 성사되지 못했다. 1970년 한 목사의 편지를 받은 그레이엄 목사는 1972년에 집회를 열겠다고 했으나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1년 연기됐다.



창덕궁 가정당 둘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말씀하고 있다. 한경직, 김장환 목사가 그 뒤에 서 있다.

1973년 집회가 확정되자 그레이엄 목사 측에서 한경직 목사에게 통역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미 한 목사는 71세의 원로였다. 한 목사는 사양했으나 그레이엄 목사 측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이나 부탁했다. 동양식으로 ‘삼고초려(三顧草廬)’한 것이다. 한 목사는 마지막으로 사양하면서 김장환 목사를 추천했다.

김장환 목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항상 영락교회로 모시고 갔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보고 싶어한 것은 대개 비슷했습니다. 제일 큰 교회, 판문점… 한 목사님은 아들이 미국 여성과 결혼해서인지 저와 우리 아이들(김 목사의 부인은 미국인 트루디 여사다)에게 관심이 많으셨죠.” 그런 인연으로 김 목사는 한 목사의 국내외 집회에서 여러 번 통역을 맡았다. “그레이엄 목사 집회에서 제가 통역을 맡게 된 것은 한 목사님 뜻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추천했으니까 당신은 아무 소리 말고 연습만 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명망 있는 통역 후보 목사들이 몇몇 계셨는데, 시골 목사인 제가 통역을 맡는다고 미리 알려지면 여러 말이 많아질 것으로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한경직 목사는 전도대회 대회장으로 추대됐다. 교계를 망라해서 전도대회 조직이 꾸려졌다. 문제는 장소였다. 당초 한국 개신교계는 서울운동장(동대문운동장·현 DDP), 효창공원 등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미국 측의 생각은 달랐다.

그때까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 집회 가운데 최대 인원이 모인 것은 브라질의 20만 명이었다.

그레이엄 목사 측은 적어도 20만 명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원했다. 그래서 결정된 장소가 지금의 여의도공원 일대인 ‘5·16광장’이었다. 이렇다 할 빌딩도 없던 시절, 허허벌판에 얼마나 모일지는 짐작할 수도 없었다. 한국 개신교계는 그런 규모의 행사를 치러본 적도 없었다. 의자 준비는 처음부터 포기하고 각자 신문지 깥고 앉는 것으로 정했다. 그레이엄 목사 측에서 6개 전도팀이 내한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춘천, 인천, 수원 등에서 집회를 열고 그 여세를 몰아 마지막에 여의도광장으로 모였다. 첫날부터 25만 명이 모였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라 했다. 그런데 이튿날부터 매일 10만 명씩 늘었고, 마지막 날엔 110만 명이 넘었다. 그레이엄 목사 전도 집회 역사상 최다 기록이었다.

“3년 전 그레이엄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그분은 청력과 시력이 매우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인사를 드리자 ‘우리 다시 한국에서 전도집회하자’ 하셨습니다.”

이 집회는 한국 사회에 대단한 충격을 주었다. 이 집회를 열면서 한국 개신교는 대형 집회에 눈을 떴다. 어떻게 조직을 꾸리고, 사람을 모으고, 설비를 갖춰야 하는지 노하우를 만들었다. 김 목사는 “이 집회 이후 한국 개신교는 400% 성장했다”고 말한다. “전도대회를 마치고 한 목사님은 ‘잘했다. 수고했다’고 격려해주셨다”며 웃었다.

서울 전도집회로 인해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한경직 목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하게 되었다고 김장환 목사는 기억한다. “한 목사님은 그레이엄 목사의 싱가포르 집회 등에 한국 대표로 초대돼 설교했습니다.” 김 목사 역시 이들의 사역에 함께 했다. 외국인들에게 한 목사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김장환 목사는 이를 영어로 통역했다. 김 목사는 “한 목사님은 영어가 유창하시지만 한국어로 설교하시는 것이 의미를 더욱 정확히 전달한다면서 한국어 설교를 하셨다”고 했다. “한 목사님과 그레이엄 목사님 두 분 모두 극히 겸손하셨고 서로를 복음의 동지로 존경하셨습니다.” **만남**

취재 김한수 기자(조선일보 종교전문)

믿음의 선교 동역자, 한경직과 빌리 그레이엄



전준희
재미성악가, 수필가



파카를 입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좌)와 집회를 주최한 한국기독교연합회 총무 유효준 목사가 피얼스 박사와의 대화 모습(우)

요즘 평창 동계올림픽이 톱뉴스로 등장하니 반갑고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하다. 한국 여자 스케이팅 팀 금메달에 이어 남자 팀의 은메달 소식에 기쁨을 나누는 순간 TV에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가 소천했다는 뉴스가 뜬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야말로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전도자요 영적 지도자였다. 내가 작은 겨자씨만 한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영향이 크다. 어릴 때 집안 어른들과 부모님 몰래 교회에 다녔다. 다행히 초등학교 졸업 후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중·고등학교에 이어 대학도 미션스쿨을 다녔기에 자연히 나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1973년 여의도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부흥집회를 했다.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여의도 광장은 롤러스케이트와 자전거를 타던 곳이다. 진흙과 시멘트 바닥이지만 부흥집회 앞자리에 앉기 위해 새벽부터 친구와 함께 여의도에 갔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어마어마한 인파에 크게 놀랐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역시 “생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곳도 한국이고, 어느 곳에서도 그 기록을 깨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나는 그 집회 얼마 전 눈 밑에 원인 모를 혹이 생겨 조금씩 커져서 한쪽 눈을 덮어 눈과 주위 전체를 제거해야 한다는 병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절망 상태였다. 어쩌면 앞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집회를 찾았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가 기도를 받았는데 나도 기도를 받았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나 자신과 온 세상이 터질 것 같고 용광로같이 뜨거웠던 기도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집회 후 며칠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로 말끔히 고침을 받았다.



1956년 2월 26일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전도대회에 모인 8만여 명의 시민들. 청중을 향해 열변을 토하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통역을 하고 있는 한경직 목사.

나는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자랐다. 그래서인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 하면 한경직 목사가 늘 함께 떠오른다. 흔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1973년에 한국에 처음 온 것으로 아는데 한경직과 빌리 그레이엄, 이 두 믿음의 거목은 6·25 전쟁 중이던 1952년에 처음 만났다*. 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전쟁 중에 부흥전도대회를 가졌다. 그때 50세였던 한경직 목사가 34세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통역을 맡으면서 믿음의 선교 동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1970년 한경직 목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게 “한국 교회에 영적인 갈급함이 간절한데 가능하다면 꼭 와서 부흥집회를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하여 1973년 5월 30일부터 5일간 열린 대부흥집회는 근대 한국 교회 선교와 부흥에 큰 초석을 놓았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그 이후 여러 차례 내한하여 집회를 가졌다.

영락교회는 나에게 특별한 교회다.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힘들어하던 고등학생 때 어느 날 새벽기도에 갔다. 교회 정문을 들어서면 오른쪽 건물이 당시 한 목사님 사택이었다. 그날 한 목사님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사택에서 나오시면서 순식간에 내 앞에 서계셔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꿈만 같았던 짧은 순간이라 기억은 흐리지만 “목사님!”하면서 목사님 손을 덥석 잡았다. 기도를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나의 갈급함을 아신 목사님이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다. 그때 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천사였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살고 있지만 영락교회 찬양대 시절을 잊지 못한다. 남편과 세계 곳곳을 다니며 활동하면서 영락교회 찬양대 출신이라고 하면 모두들 부러워하곤 한다. 한국 교회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사역을 잘 감당해온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이후 많은 목회자를 거쳐 올해 김운성 목사님이 부임했다. 하나님이 예비하여 보내주신 김운성 목사님과 함께 영락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시대 속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한다. **만남**

* 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 바란다.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http://hankyungchik.org>), 빌리그레이엄센터에서 발행한 1952년 ‘한국 크리스마스 방문’ 일정표



“이웃과 시대의 아픔에 복음으로 답하라!”

2018 한경직목사기념주간 (2018. 4. 15.~21.)



김응신 목사
노원교구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홍보출판부

한경직 목사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여 매년 4월 셋째 주간은 한경직목사기념주간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중 ‘이웃 사랑’을 테마로 하여, 한국전쟁 후 모든 것이 무너져 신음하고 있던 시대의 아픔과, 그 현장 가운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회복의 명을 받들어 주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 사명을 감당했던 정신을 오늘의 현장으로 이어가고자, “이웃과 시대의 아픔에 복음으로 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의미 있는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2018 한경직목사기념주간 행사가 진행됩니다.

4월 세 번째 주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한경직목사기념주간으로 아래와 같이 기념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성묘예식

2018. 4. 18.(수) 오후 2시
영락공원묘원

기념예식

2018. 4. 20.(금) 오전 10시30분
영락교회 본당

기념강연회

2018. 4. 20.(금) 오후 1시
영락교회 본당

기념음악회

2018. 4. 21.(토) 오후 6시
영락교회 선교관

2. ‘한경직목사기념상’이 보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한 한경직 목사님의 삶과 정신에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단체 혹은 기관을 선정하여 후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한경직목사기념상’이, 금년 5회째를 맞이하면서 후보 및 수상기관을 선정하는 진행절차가 보다 조직적이고 변화됩니다. 특별히 금년부터는 5인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따로 조직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기준이 적용된 여러 단계의 심사과정을 통하여 1개 기관을 선정한 뒤 상패와 후원금을 수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3. 공동 학술대회가 진행됩니다. (6월 중)

전쟁의 후유증으로 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갈길 조차 막연한 민족과 이웃에게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내일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역의 현장 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의 남침으로 남한의 대부분을 점령당하고 대구와 부산만 남았던 백척간두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대구로 피난을 내려가 교회설립을 통하여 전도활동을 계속 이어갔던 한경직 목사와 함께 동역했을 뿐 아니라, 주석가로도 교계에 잘 알려진 이상근 목사의 목회사상과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이상근목사기념사업회와 함께, 시대의 아픔 속에 스며든 한국기독교 신학의 뿌리를 함께 연구하는 목적의 공동학술대회가 6월 중 개최됩니다. 김운성 목사님의 주제 강연을 비롯하여 7명의 학자들의 논문발표를 통해 풍성한 나눔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4. ‘포이메네스 영성아카데미 5일 수련’이 확대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시행된 ‘포이메네스 영성아카데미 5일 수련’이 지난 2월에 이어 8월 중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의 현장 속에서 목회자들의 사역 현장을 기도로 돋고 함께 지켜나가면서도 오히려 영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모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포이메네스 사모수련’이 새롭게 계획되어, 오는 4월에 첫 ‘3일 수련’이 처음 시작될 예정입니다.

포이메네스 사모 수련

2018. 4. 5.(목) ~7.(토)

영락수련원

포이메네스 5일 수련

2018. 8. 19.(주일)~24.(금)

영락수련원

2018 한경직목사기념주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진행되는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 한경직 목사의 시대적 사명과 정신을 오늘의 현장에 계속 이어갈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에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가 계속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땅끝에서 만난 부활의 아침



정연수 선교사(인도)



어린이예배 모습

나마스테.(안녕하세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만남」을 통해 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올해가 저에게는 영락에서의 사역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10년 전 영락교회로 부임하여 부목사로 3년, 인도 뱅갈로에서의 인도 적응기간 3년, 그리고 지금의 북인도로 이동하여 사역한 지 3년, 이렇게 9년을 지내고 10년째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 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2009년 영락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여 교구사역과 선교부 전도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를 훈련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이 대학시절 한 기도 모임에서 “선교사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친 외마디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이후 23년 동안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전도훈련을 시켜주셨고 목회훈련을 시켜주셨고 관계훈련을 시키시면서 선교사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2012년 2월, 영락교회 본당에서 인도 선교사로 파송 받아 이제 인도에서 생활한 지 6년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 인도 뱅갈로에 도착하여 경험하게 되는 타문화권에서의 삶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부터 열까지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인도라는 나라를 배



예배 중 찬양하는 모습

우게 되었고 인도는 그리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도를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동서남북으로 정탐여행을 다니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인도는 선교하기에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언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인도는 공식 언어만 17개이고, 모두 800여 개의 언어와 2,000여 개의 방언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는 언어의 문제를 뛰어 넘어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선교학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미전도종족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에 3만3,000여 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중 3만여 개 종족은 성경 번역이 되었고 나머지 3,000여 개 종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데, 그중에서도 2,500여 개 종족이 북인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인도가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선교지라는 도전이었고, 하나님

이 저를 북인도로 부르신 첫번째 이유였습니다.

뱅갈로에서의 인도 적응훈련을 끝내고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 북인도 텔리로 이동하였습니다. 텔리는 뱅갈로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족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선교 대상지로 나를 보내셨다는 그 마음 하나가 있었을 뿐입니다.

텔리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역할 것인지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어린 이사역, 목회자 재교육, 신학교사역, 교수사역 등 여러 가지 방향의 사역 모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보면서 저의 선교사역 방침을 선교지에서의 교회개척으로 정하여 마음에 품고 준비하였습니다. 사역 대상지도 수도 텔리가 아닌 위성도시로 정하



어린이 성경공부 모습

고 지금의 도시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지를 정하기 전, 인도 사역자와 함께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땅밟기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생활하면서 느꼈던 인도와는 전혀 다른 인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은 앞으로 메트로(전철)가 지나가고, 뒤로는 국철이 지나가는 이른바 역세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세권이란 말이 무색하게 입구부터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호수가 있었고 파리와 모기가 들끓고 들어가는 입구도 성인 남자 한 명이 지나가면 가득 차는 비좁은 슬럼가였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작게 시작한 방과 후 학교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점점 탄력을 받아 지금은 교회가 되었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첨병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을 드나드는 저 어린 심령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수혈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 지역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도시에 2개의 영락교회를 개척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진행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인도 교회를 돋는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두 곳을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지만 인도 교회와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두 명의 사역자들이 인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의 한 교단 노회장님을 만나게 되어 그분과 더불어 비전을 나누고 목회자 기도모임과 목회자 재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2월부터 시작하게 된 우리 영락선교센터에서 목회자 기도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두 명의 사역자들을 교단 목사로 허락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제목을 모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도시의 목회자들이 우리 영락선교센터에서 인도를 위하여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 선교에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선교센터를 통해 인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암 캐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인도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들이 올 한 해 기대하고 소망한 바를 시도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 인도의 땅끝에서. **만남**

시대와 사람을 품는 영락교회 문화선교



이기열 안수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선교부 문화선교 차장

예배드리는 자인 우리들 자신, 건물, 공간 그리고 이 시대와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모두의 삶과 그 자리가 곧 영락교회다.

문화선교는
영락교회 선교부(부장 정천우 장로)에
소속되어 문화로 선교 사역을 담당한다.

1998년 3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 1:28)”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뮤지컬 공연팀과 발레 공연팀을 창단하면서 영락교회 문화선교 사역은 시작되었다. 우리들의 거칠어진 본성과 죄성에 사로잡힌 마음을 문화를 통해 정화하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1년 후인 1999년 3월에 문화선교 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악 찬양팀을 창단하였으며 국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문화를 전파하였다. 2004년에는 뮤지컬 공연팀, 발레 공연팀, 국악 찬양팀이 선교부의 문화선교로 편성되어 활동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문화의 장르들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본격적인 문화사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후 영락 문화선교는 전문 기독문화 사역자를 발굴·육성하여 예배 및 교회의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기독교 복음 정신으로 이 땅 위에 기독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교활동을 지속해 왔다.



성탄축하 문화공연 '별이의 별 이야기'

문화를 통한 선교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복음을 담은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문화선교’이다.

둘째는, 세상과 더불어 사는 성도의 삶의 자리, 사고, 정서에 문화적 소양을 채워주고 훈련시키는 ‘교회 내의 문화 활동’이다.

교회 밖으로의 문화선교 사역은 복음을 담은 문화 콘텐츠를 통한 군·경 복음화 공연, 미자립교회의 복음 제시와 위문 공연, 국가 유공자와 환우들을 위로하는 공연 등 철저하게 준비된 문화공연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이를 통해 온누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이 선포되기를 소망한다. 이들 공연은 여러 문화 장르로 연출된 격조 있는 문화공연으로서 사회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사회 속에 영락교회의 문화적 품위와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교회 내의 문화 활동은 다양한 문화기획과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우분들이 문화적 소양을 채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금요 예배극,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축하공연, 선교활동을 재조명하는 선교

대회 오프닝 축제 공연,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감사 공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공연 등,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재조명함으로써 교회 문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영락 문화선교는 앞으로도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갈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런 방향 성도 없이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기독교적 창조 세계관에 입각한 창조적인 문화 변혁을 하나님과 이 사회가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중문화의 주 소비층인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설득력 있고 창조적인 문화 장르를 제공하고, 그 안에 복음을 소개하며 교육하는 문화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 변혁은 전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화 속에 복음을 통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화되도록 하는 노력이다.

영락 문화선교는 신앙의 선배들이 땀 흘려 세워놓은 영락교회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사회 문화적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새로운 문화 장르를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수준 높고 건강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하나하나 꾸준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 문화선교는 장차 도래

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 사역 계획의 수립, 혁신된 젊은 사역자의 지속적 발굴·육성, 젊은 청년 세대의 문화선교 참여 확대 등 문화선교 비전을 제시하면서 선교적 문화사역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교적 문화사역의 완수를 위해서는 내적인 현황과 당면한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으며, 단시간 내에 문화사역을 완성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선교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하며, 각 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후원과 지원 방법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선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본질인 교회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후원 그리고 문화선교 사역을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현 시대가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자로 구별된 우리들 자신이나 건물, 공간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모두의 삶과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영락교회 문화선교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받들어 영성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장르를 개발하여 이 시대와 사람을 품고 위해 기도하며 온전한 문화선교 사역 자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만남**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지난겨울이 유난히 추웠기 때문일까? 돌아보니 참 긴 겨울이었다. 3월 초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다. 하지만 봄의 기운을 느낀다. 추위가 매섭지 않은 것은 새로운 생명의 봄이 오고 있기 때문이리라.

올해 부활절 음악회는 임마누엘찬양대가 섬긴다. 깜깜한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와 주께 찬양 드리는 대원들의 열심만 한 감동은 없다. 졸다가 보면 내려야 할을지로 3가역을 지나 돌고 도는 지하철 2호선. 내선순환인지 외선순환인지. 버스 타고 졸다가 깨보면 다시 출발했던 종점. 평일 새벽에 눈을 떠 주일인가 서두르다 다시 잠을 청하고, 밤새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건 기본이다. 눈 오고 비와서 대원들이 많이 못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미끄러운 길 조심조심 나와 보니 출석률 제일 좋은 주일이었다. 잠 많은 청년들이 토요일 밤의 열기에 놀면서도 드는 죄책감, 주일 새벽 6시 연습시간에 늦어 찬양대도 서지 못하고 예배당서 드린 1부 예배… 졸다 깨보니 2부 예배 축도라던가?

이 많은 에피소드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 임마누엘은 사망과 생명(?)을, 죽음과 부활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찬양대다. 새벽에 준비하는 찬양으로 은혜와 작은 기적들이 가득하다.

임마누엘찬양대가 2018년 부활절을 위해 준비한 음악은 톰 페트케(Tom Fettke)의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Above All Kings)>이다. 교회음악 작곡가 톰 페트케는 지난 30년간 초교파적으로 사용되는 찬송가들은 물론, 성가대나 예배음악 인도자들이 즐겨 찬양하는 곡들을 많이 작곡하였다.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은 예수의 지상사역을 그린 작품으로, 특별히 생애의 마지막 날과 3일 후의 부활에 집중하고 있다. 서곡으로 시작해 부활하신 왕, 영광의 왕,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까지 모두 11곡으로 이뤄진 이 작품은 참으로 의미 있는 두 캐릭터, 요셉과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를 등장시킨다. 예수와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드라마에 매력적인 영감의 음악이 더해져 깊은 울림을 남긴다. 우리는 지난 추운 겨울 동안 이 음악을 연습하며 예수의 아픔과 참된 사랑을, 그의 고통과 참된 승리를 경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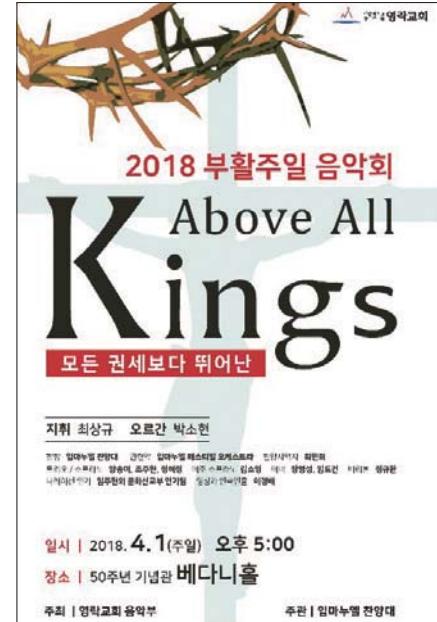


최상규
안수집사
마포·영등포교구
임마누엘찬양대 지휘자

였다. 해골의 언덕, 골고다의 아픔과 고통을 노래하는 찬양을 들으실 교우들께서도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돌문을 굴려내고 앉아 있는 모습을 통해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처럼 떨며,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살아나셨느니라” 전한 부활의 소식을 직접 체험하시리라 믿는다. 부활의 떨림을 경험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여인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리라 믿는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특별히 작품 속 내레이션을 연극으로 준비했다. 페트케의 음악 진행을 좀 더 극적으로, 바로 내 앞의 현장으로 표현해 보려는 고민의 결과다. 연극으로 표현되는 내레이션은 임주현 등 문화선교부 연기팀이 참여해 훨씬 풍성하게 되었다. 실시간 영상으로도 볼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영상 및 연극 연출 이경배). 문득 50주년기념관 베다니홀이 처음 오픈했을 때가 기억난다. 한 교우 분이 무대를 바라보며 “이곳에서 오페라를 할 수 없을까요?”라고 물으셨다. “오케스트라 피트도 없고, 무대 양 옆의 예비 무대와 무대 뒤 공간이 없어 (오페라는) 어렵겠지요?”라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이번 음악회는 교우들과 입체적인 감동을 나누기 위해 콘서트 형식 오페라 혹은 오페라 갈라 음악회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박소현 집사의 오르간에 더해 임마누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찬양사역자 최민희, 소프라노 트리오 양송이, 조주현, 정혜정과 메조 소프라노 김소영, 테너 장명성, 임도건, 바리톤 정규환 등이 무대를 채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 구세주 되심을 몰랐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심도 보여주셨다. 하늘의 영광을 버



부활절 음악회 일시 : 4월 1일 오후 5시
장소 : 50주년기념관 베다니홀

리고 우리에게 오셨고 눈 먼 자들을 보게 하셨다. 나를 위해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며 죽으신 참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주 예수께서 부활 승리하신 것이다.

예수의 시신을 수습한 아리마데의 요셉과 유대관원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멀리한 제자들과는 달리 시신을 수습하고 무덤까지 모신 뒤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본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이모 살로메처럼, **부활하신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심을 노래하자.**

지난 2017년 9월 임마누엘찬양대는 창립 50주년, 희년의 해를 맞아 감사와 감격의 음악회를 가졌다. 50년을 지속해 온 새벽의 임마누엘 찬양처럼, 부활절 음악회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과 앞으로의 모든 찬양이 주님을 향한 헌신(獻身)과 헌심(獻心)의 노래로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만날**

〈황무지〉에서 진정한 부활 소망을 읽는다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번식시키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April is the cruel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Memory and desire, stirring
Dull roots with spring rain.

(제1부 〈죽은 자의 매장〉 첫연)

만물이 소생 부활하는 봄철인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인 까닭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T.S.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의 〈황무지〉 중 위의 첫 구절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엘리엇이 이 시를 쓴 것은 1922년으로, 당시 시인은 무의지증(aboulia) 또는 무관심증(acedia)에 시달리고 있었다. 스위스 레만 호 숫가 로잔느에서 휴양치료를 받고 있던 그는 형님에게 쓴 편지에서 “애쓰지 않고 집중하는 법” “걱정해서 얻을 것이 없을 때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하나에 집중하는 최선책은 전심 전령 전력으로 ‘하나의 님’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목렌즈의 좌우 빛이 초점에 모이듯 좌우로 떨어져 있는 과거와 미래가 한 중심에 모여 시간(間)의 간(間)격이 사라진다. 이 중심점을 엘리엇은 “스틸 포인트(the still point)”라 부른다. 심파가 고요해진 “정점(定點)”이며, “영원한 현재”다.

“잔인한 달 4월”은 시간 차원에 속한 봄철이다. “흐르는 지금”이다. 이 시간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에 이를 수가 없다. 짹터 오르는 부



이명섭 교수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활의 봄에 독수리처럼 하나님 나라로 날아오르고 싶은데 죄의 그물에 걸려 날아오를 수 없는 4월이 가장 고통스럽다. 과거는 이미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현재에 산다. 현재가 없으면 산 것이 아니다. 거룩한 영인 하나님의 영원이 영원한 현재이다. 이 영원한 현재에 집중해야 성령의 열매인 평화가 찾아온다. 순종은 집중이 다, 귀기울임이다. 하나님의 참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고 사탄의 거짓 말에 귀기울인 아담이 낙원에서 떨어진, 실락원이 바로 황무지다.

아담처럼, 시인처럼, 현재의 시간 속에 사는 황무지 인들은 하나님께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귀나 이데올로기에 정신을 팔기 때문에 육체는 부활했으나 정신이 없는 “삶 속의 죽음(death-in-life)”을 산다. 영혼이 없는 황무지인들은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케아 교인들처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계 3:16) 기회주의적인 사이비 종용인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자들을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고 하신다.

다시 생각해보자. 왜 사월이 잔인한가. 변하는 만물은 봄철에 부활하지만 불변하는 영혼은 부활할 희망이 없으므로 4월은 가장 잔인하다. 영원한 현재의 정점이 없는 봄철은 “[과거] 추억과 [미래] 욕망을 부조화스럽게 뒤죽박죽 마구 뒤섞고 있다(mixing).” 과거의 추억은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이다. 미래의 희망은 공포를 수반한다. ‘사라진 영원한 사랑의 별’에 대한 추억과 ‘눈물의 은하수 건너서 만날’ 소망이 마구 뒤섞여 정신이 산만해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부활절 무렵이면 겨우내 언 땅을 뚫고 수선화가 올라온다. 엘리엇은 꽃을 피우는 4월이 부활을 준비하는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다.

않는 황무지 인들은 미래의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새로운 삶의 씨를 뿌릴 현재가 없는데 어떻게 그 현재의 열매가 맷힐 찬란한 신세계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인가.

만물이 부활하는 봄이지만 진정한 영혼의 부활이 없는 황무지의 4월은 가장 잔인하다. 현대의 바벨로니아인 황무지에는 만물이 부활하는 봄에도 “라일락은 죽은 땅에서 번식하고(breeding) 있는 중”이다. 그리고 사월은 “둔감한 뿌리를 봄비로 뒤섞고 (stirring) 있다.” 겨울에 물을 먹지 못해 균형을 잃은 뿌리를 적셔 균형을 회복시켜주어야 할 물이 오히려 뿌리를 휘저어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봄 같지 않은 봄보다 오히려 죽음의 겨울이 더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겨울은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면서/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다/작은 생명을 마른 덩이뿌리로 먹이면서.” 시간 차원에 며물려있는 4월처럼 겨울도 영원이 아니라 달리는 시간 속에 있는 계절이다: 시인이 4월을 말하는 데 사용한 단어들인 봄의 브리딩(breeding), 스터링(stirring)과 겨

울의 커버링(covering), 피딩(feeding)은 모두 진행형이다. 욕망의 열차가 행 끝에서도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잉잉잉잉’ 거리면서 달리는 소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구약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러나 죽어야 하나님을 만나 새사람으로 부활한다. 〈황무지〉의 마지막 제5부에 하늘에서 “다 다 다(DA DA DA)”하고 천둥소리가 울린다. “다 다 다”는 산스크리트어로 “줘라 줘라 줘라”는 뜻이다. 이 3번의 천둥소리에 순종하면 연이어 떨어지는 벼락에 맞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게 된다. 이웃에게 물질을 ‘주고’, 마음을 ‘주고’, 자기 욕심을 억제하면 나와 이웃과의 간격이 좁아지고, 과거와 미래의 시간 간격도 좁아져 과거와 미래로 흐르던 시간의 강물이 원뿔의 꼭지점으로 수직으로 솟아오른다. 시간의 강물이 흘러가 죽음에 이르지 않고 정지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면 “한줌의 흙 속에 것들었던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평화”(빌 4:7)가 찾아온다.

시인은 〈황무지〉의 마지막 절에서 “샨띠 샨띠 샨띠(Shanti, Shanti, Shanti)”라고 만세 삼창을 한다. 샨띠는 산스크리트어로 평화라는 뜻이다. 히브리어의 ‘샬롬’과 같은 말이다. 엘리엇은 이 시에 단 자주(自註)에서 ‘샨띠’는 빌립보서의 “인간의 사고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빌 2:6 이하) 예수님처럼 내 뜻을 비워 가난하게 하면, 그분처럼 우리도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게 되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된다.

엘리엇은 이 시가 개인적 불평의 토로이며 리드미컬한 투덜거림에 불과하다고 겸허하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균형을 잃어 실락원에 떨어진 인간 상황을 증언하는 보편적인 시이기도 하다. 위대한 예술가는 셰익스피어나 단테처럼 “자기의 개인적 고뇌를 초월하여 풍성하고 놀라운 것으로, 보편적이고 탈 개성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연금술사다. 〈황무지〉에 인유된 셰익스피어의 〈폭풍우〉에 등장하는 공기의 요정 에어리얼이 부른 노래처럼, 시는 바다에 빠져 익사한 부왕의 “눈이 진주로 변한 것”이다. 개인적 고생(苦生)이 영원한 정점에서 보편적 진리로 고생(高生)된 것이다. **만남**

시 〈황무지〉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시로 꼽힌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황폐한 인류 문명을 434줄에 이르는 장시로 담아냈다. 1부 〈죽은 자의 매장〉 첫 연이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2부 〈제스 놀이〉, 3부 〈불의 설교〉, 4부 〈수사〉, 5부 〈천둥이 한말〉로 이어진다.

이명섭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영문학자로,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회장을 지냈다.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엘리엇과 동양사상』, 『서양문학에 비친 동양의 사상』 등 영문학을 동양사상으로 읽어내는 저서를 여럿 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T.S.엘리엇의 시와 동양사상으로 말씀을 전했다.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4월의 영락영화



안네의 일기

(The Diary Of Anne Frank, 1959)

1일, 8일



감독 : 조지 스티븐스 주연 : 밀리 퍼킨스, 조셉 쉴드크로트, 셜리 원터스
상영시간 : 1시간 30분(상), 1시간 20분(하) 장르 : 드라마 등급 : 전체 관람가

1934년 여름 하틀리가 집권하자 유대인인 안네 프랑크의 가족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정착한다. 그러나 나치 독일은 1941년 네덜란드를 침공하고 프랑크 가족은 은신처를 찾아 숨는다. 열여섯 살의 안네가 가족과 함께 2년 동안 좁은 은신처에 숨어 지내던 숨막히는 생활이 가슴을 울린다.



15일

사랑의 빛이 된 한경직

(2011)

감독 : 천정훈 주연 : 한경직, 정애리(내레이션)
상영시간 : 1시간 26분 장르 : 다큐멘터리 등급 : 전체 관람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를 거쳐 전쟁과 분단을 겪은 아픈 역사 속에 나라 잃은 겨레의 아픔을 눈물로 기도한 한 사람이 있다. 종교를 뛰어 넘어 사회의 가장 큰 어른, 소외된 이웃들의 울타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한 시대의 거인 故 한경직 목사. 그가 걸은 신앙의 길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감동의 영화다.



사랑은 비를 타고

(Singin' In The Rain, 1952)

22일



감독 : 진 켈리, 스탠리 도넌 주연 : 진 켈리, 도널드 오코너, 데비 레이놀즈
상영시간 : 1시간 43분 장르 : 뮤지컬, 멜로/로맨스, 코미디 등급 : 전체 관람가

최고의 대중문화로 자리 잡은 영화 역사의 한 장면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버무린 뮤지컬 영화. 주제가 '사랑은 비를 타고(싱잉 인더 레인)'는 현대의 클래식이다. 노란 비옷 차림으로 가로등 아래 노래하며 춤추는 진 켈리의 모습은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의 영원한 아이콘으로 남았다.



29일

굿바이 마이 라이프

(Captains Courageous, 1937)

감독 : 빅터 플레밍 주연 : 프레디 바톨로뮤, 스페서 트레이시
상영시간 : 1시간 55분 장르 : 드라마 등급 : 12세 관람가



버릇없고 기고만장한 부잣집 아들이 고난을 통해 진정한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성장 영화. 1930년대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대의 명작 중 하나다. 돈과 권력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었던 소년 하비는 유람선 난파로 어부들과 지내게 된다. 거칠지만 신실한 어부들에게서 하비는 노동과 우정의 중요성을 배운다. 당대의 명배우 스페서 트레이시의 전성기를 볼 수 있다.

잘 섬기겠습니다

신임 부목사 부임 인터뷰

지난 2월 말 신임 부목사 여섯 분이 오셨다.
영락 교우들에게 이 분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편집위원회가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김정희 목사

강북·도봉교구
자원봉사부
영락기도대
베다니찬양대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사랑과 정이 많은 아내 김지은 사모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인 큰아들 찬규와 3학년인 작은아들 민규, 6세인 막내딸 선아 이렇게 다섯 식구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광야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좌절과 낙심과 불안감의 고통 가운데 있던 저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였고, 이후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신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민하던 중에 이사야 43장 1~2절 말씀을 읽을 때 소명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말씀에 순종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진학하여 훌륭하신 교수님과 귀한 좋은 선배와 동기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선지동산에서 경건과 학문의 훈련을 받으며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한 성도의 병상 세례 집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신데, 부인이 수십 년 넘게 전도하기 위해 애썼지만, 너무나



완고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다가 노환으로 오랜 시간 병상에 계시던 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하셔서 자택으로 심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전혀 들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궁리 끝에 영접 기도문을 보드에 써서 한 문장씩 고백하게 하였고, 이후 세례교육과 세례문답 그리고 세례예식의 전 과정을 보드에 써서 집례까지 하였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락교회 교우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기대가 있다면?

성도님들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박지운
목사

서대문·은평교구, 선교부(전도), 2남/2여, 시온찬양대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는 과분한 아내와 너무도 사랑스러운 세 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 삶을 헌신하면서 목회자로의 소망을 강하게 품게 되었습니다만 감히 목사가 되기에는 청소년기의 죄 많은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외아들이기에 스스로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하여 평신도 사역자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일반대학에 진학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20대 내내 있었습니다. 특히 21세 때 나고 자란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일로 인해 말로 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경험했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겪으며 좋은 목사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나 스스로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마음속 깊이 품게 됐습니다. 당시 분립해 나온 자그마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같은 사역을 하면서 목회에 대한 달란트도 발견하고, 사역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교로 군대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지요. 마지막 휴가 때 6남매를 키우느라 주름이 자글자글해지신, 어느새 일흔세 살이 되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죄송스러운 심정으로 신학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뜻하지 않게 당신도 계속 기도해 왔다고 말씀하시며 그 방,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기도로 인해 제가 목회를 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목회를 하시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결혼과 출산, 그리고 부모의 임종과 장례까지 베풀었던 어느 젊은 가정도 기억에 남습니다. 목회는 한 사람의 전 인생을 함께하며 함께 울고 웃는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신대원에 입학하자마자 70여 명 되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겼었는데,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소자와 같은 교육 전도사를 위하여, 어느 권사님께서 목에 좋다며 주신 꿀단지를 신학교 기숙사에서 같은 방 전도사님들과 나누어 먹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교회는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성도의 귀한 섬김으로 목사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며 감사해하던 저녁이었습니다.

영락교회 교우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기대가 있다면?

이제 막 부임하여 아직 교회가 낯설고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간혹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락교회 부목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최선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장로회신학대학교 동문이며,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던 아내(유희정)를 만나 3년 교제 끝에 평생의 동역자로 맞이하여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딸 소은(8살), 소민(4살)이와 백일이 조금 지난 아들 서진이 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은혜 가운데 살 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먼저는 아들을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하신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출생 시 어머니의 임신중독으로 조금 약하게 태어났고, 저 이후로 태어난 두 명의 동생들은 출생 직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저는 또한 초등학교 1학년 때, 원인 모를 병으로 심하게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 무렵 부모님께서는 저 조차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시며,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 이후 줄곧 제가 주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정작 저의 결단은 고등학교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의 일로 잠시 캐나다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대자연 앞에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주하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외에는 섬길 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산과 호수를 바라보며 주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언젠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여름수련회로 국토대장정을 참여하려고 준비하던 때입니다. 연초부터 국토대장정의 루트를 기획하며 준비해 오던 중, 수련회를 몇 주 앞둔 어느 날, 저희가 둘째 날 머물려고 했던 숙소에 벼락이 떨어져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급하게 루트를 변경하고, 새로운 숙소를 찾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작은 마을 전체로부터 저희 학생들이 환대를 받으며 머물렀던 때가 기억납니다. 벼락을 직접 만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할 뿐입니다. 늘 지키시고 언제나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락교회 교우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기대가 있다면?

영락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임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교회 질서 안에서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균형 있는 목회 사역이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며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성은
목사

용인·화성교구, 선교부(문화, 의료),
3남/3여, 호산나찬양대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아내와는 제가 견습선교사로 있던 캐나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교제하다 2012년에 결혼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아내는 연주와 가르침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나눠주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하임(夏林)'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한여름의 푸른 숲처럼 많은 생명을 품는 푸른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학시절 인생과 신앙의 의미를 고민하며 적잖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또 하나님의 의미와 관계에 대한 질문들과 싸웠습니다.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갔던 교내 선교단체에서의 예배와 성경공부는 하나님과 제 자신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4년 인도양 쓰나미 피해를 돋기 위해 떠났던 선교팀 단기선교의 여성 가운데서 삶의 터전을 상실한 데 앞서, 영혼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보며 영혼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신학과 목회의 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교우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기대가 있다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바로 건강한 교회공동체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껏 원근에서 공동체의 가슴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곳곳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들과 신앙공동체를 바라보며 건강한 교회공동체, 건강한 목회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그 길이 선명하진 않지만, 주님 안에서 영락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가고 싶습니다.

안양·수원교구, 소그룹, 상담부(가정사역), 갈보리찬양대

김충섭
목사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저의 가족은 제 인생의 동반자이며 기도의 동역자인 김효진 사모와 1남 1녀의 자녀들입니다. 첫째 주하(하나님이 주신 선물)는 초등학교 1학년이며, 딸 민하(히브리어로 '선물'이라는 뜻)는 5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장하며, 찬송하며 기도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늘 사모하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울 때마다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시기였지만, 한 번도 목회의 소명이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든든히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지금의 목회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목회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목회자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도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대심방 기간에 어느 권사님 가정을 심방하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그 앞의 해에도 여러 번 방문하였기에 교회 주소록 주소를 참고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 후 권사님의 집 호실을 누르고 심방 왔다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리고, 권사님의 아파트 문도 열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가니,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놀라고, 그분도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사역했던 권사님은 한 달 전 이사를 했고, 교회에 알렸기에 저도 알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또한 제가 방문한 집의 권사님(초면인 분)은 다른 교회 대심방을 실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가는 버릇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영락교회 교우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기대가 있다면?

먼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도록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영락교회가 언제나 그랬듯 한국 교회의 대표이자 본이 되는 교회로 묵묵히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저에게 맡겨 주신 사역은 안양·수원 교구와 소그룹, 가정사역부, 갈보리 찬양대입니다. 맡겨 주신 사역을 기도하며,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정열
목사

인천교구, IT미디어부, 갈릴리찬양대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강우와 강현을 두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학부 때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컴퓨터와 신학은 얼핏 보면 관계가 없어 보이고 서로 섞이기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루터와 칼뱅이 떠오르고 95개조 반박문과 기독교 강요가 생각납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사제가 아닌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게 되었고 기독교 강요를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게 됩니다. 엄청난 변혁이 이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기술은 바로 ‘인쇄술의 발달’이었습니다.

과거 성경책은 대부분 필사본이었는데 인쇄기술이 발달되고 대량생산체제가 완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살 수 있었던 성경과 서적들을 평민들도 구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은 신앙과 신학의 혁명이자 기술의 혁명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학이 당시의 하이테크놀로지와 접목되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관련 지식과 경험이 이러한 힘이 있고 저의 달란트가 교회와 목회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신학과 컴퓨터가 접목된다면 어떠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교우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기대가 있다면?

영락교회에서 맡은 IT 미디어 부서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의 사명과 비전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도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기도를 부탁드리며 즐겁고 은혜로운 목회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사 기쁨과 형제 섬김

- 자원봉사부 교통안내팀과의 만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헌신을 실천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 자원봉사부(부장 김종복 장로)다. 교우들이 경건하고 은혜로운 분위기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숨어 봉사하고 있다. 매주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많은 곳에서 자원봉사부 봉사자들의 노력과 수고를 찾아볼 수 있다. 오늘도 다양한 각자의 낮은 자리에서 교우들을 섬김으로써 사랑의 겨자씨를 심고 있는 봉사자 분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자원봉사부는 ‘교통안내팀’(교우들의 안전보행, 교우 차량의 안전운행, 주차안내), ‘식당봉사팀’(식권판매, 잔 반정리, 경로석 배식도움), ‘환경정리팀’(본당, 베다니홀 청소 및 정리, 분리수거, 조명소등), ‘교회안내’(교회방문자에게 예배 및 장소안내), ‘꿈나무 쉼터’(부모가 예배 및 교회봉사 참여 시 자녀지도), 그 외에 ‘엘리베이터 안내’, ‘분실물관리’, ‘도서대여’, 갑작스런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119팀’ 등 여러 모양으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사랑의 겨자씨를 심고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부’ 내의 많은 봉사팀 중에서 이번에는 특별히 겨울철 추위와 한여름 무더위에도, 또 지하주차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고 있는 ‘교통안내팀’의 김영건 안수집사(종로·성북 교구)를 만났다.

“우리 교회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회 주변 교통 상황이 매우 혼잡한 경우가 많아, 가장 우선적으로 교우와 시민들의 보행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해요. 또한, 교우

들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높아서 교우 차량의 안전운행과 주차관리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안내 봉사를 하며 늘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어려움도 많다고 했다.

“주일마다 교회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길게 늘어선 차량으로 인해 삼일대로의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은 총 300면이 있어서, 1부에서 5부까지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1,500대 차량의 주차가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 주차장 입, 출차 현황을 살펴보면 1,000대가 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주일 아침 일찍이 입차한 제직 및 봉사자(찬양대원, 교사 포함) 차량들 중 상당수가 4시간 이상, 심지어 7시간 이상을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참석하는 교우들이 주차장소를 찾아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김 집사





교회 안팎 여러 곳에서 섬기고 있는 자원봉사부 교통안내팀.

는 장시간 주차 차량은 반드시 교회 주변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일 예배 참석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요청 드리며, 승용차 이용 시에는 ‘2시간 이내 주차 원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교회 지하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도 달라진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더 이상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좀 더 많은 차량의 주차를 위해 이중주차를 허용했으나, 예배 종료 후 이중주차 차량으로 인한 출차의 어려움과 차량접촉의 우려로 인해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3층 주차장은 어린이와 노약자를 동반한 교우들의 차량을 우선적으로 주차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교우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교우차량의 교회 주변 불법주차 문제도 언급했다. “요즘은 교회 주변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통행도 상당히 많아져서, 주일에 교회 주변이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최

근에는 저희들이 불법주차 된 교우차량에 안내문을 꽂아 자제를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인근 주민과 보행자로부터 우리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되는 불미스러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내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변 시민과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 절대 금지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말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부’의 인적자원 부족을 위해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원봉사부의 봉사업무를 자칫 하찮게 보시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하지만, 부활 기쁨을 안고 형제를 섬기는 ‘봉사의 기쁨’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 믿습니다. 찬양봉사나 선교봉사와 함께 자원봉사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교우들이 ‘봉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탐방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이미혜 부선임기자



김운성 목사 위임예식



지난 3월 4일 주일 찬양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김운성 목사의 위임예식으로 드렸다. 서울노회장 서정오 목사가 인도한 이날 위임예식은 1부 감사예배에서 박위근 목사(염천교회 원로)가 ‘다시 해야 할 고백’이라는 주제로 “현재 영락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막중한 임무를 디모데와 같은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2부 위임예식에서 위임목사는 “본 교회 목사로 충실히 섬기며 교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로” 서약했고, 예식에 참석한 성도들은 모두 기립하여 “앞으로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협력자가 되기로” 서약에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운성 위임목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을 위해 겸손한 자세로 복음사역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이날 본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과 함께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로” 약속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박홍기 선임기자



이철신 목사 원로목사·공로목사 추대예식

지난 2월 25일 주일 찬양예배는 교회 본당에서 이철신 목사 원로목사·공로목사 추대예식으로 드렸다.

김운성 목사가 인도한 위임예식 1부에서는 서울노회장 서정오 목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8)'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으로 감사예배가 드려졌다. 2부에서는 지난 1997년 12월 2일, 영락교회에 부임하여 1998년 1월 18일 위임식 이후 20년 2개월간의 목회를 마치고 2018년 2월 25일 은퇴하는 이철신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했다. 3부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가 이철신 목사 공로에 감사하며 공로목사로 추대했다.

이철신 목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은퇴 후에도 기도 사역, 목회자 사역, 통일 사역 등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신 목사의 은퇴기념 설교집 '하나님이 가꾸시는 인생정원, 가드닝(gardening)'이 출간되어 각 교구 가정에 배부되었으며, 베다니광장에서는 2월 24일(토)부터 3월 2일(금)까지 '이철신 목사, 성역 40년, 영락에서의 20년' 기념사진전이 열렸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박홍기 선임기자

2018년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



새학기를 맞이하여 2월 26일(월)부터 오전 6시 본당에서 ‘믿음의 부모, 복된 자녀’라는 주제로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가 교육부(부장 박남진 장로)주관으로 3월 3일(토)까지 진행되었다. 첫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사랑부/영아·유아·유치부를 위해 ‘자녀를 복되게 하는 부모(창 26:1-5)’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처럼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떠한 역경이 와도 자손을 번성케 하고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 날인 3일(토)은 청년부·자유인 청년들에게 ‘남겨줄 이야기(창 48:15-16)’라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야기, 영락의 가정이 믿음의 신앙 스토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당부하면서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 교통과 안내, 식사, 방송 등으로 수고한 봉사자들과 영락의 각 가정들을 축복했다. (관련 화보 69면)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아동부 봄맞이 성경학교



아동부 봄맞이 성경학교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2월 24일(토) 진행되었다. 기쁨의 찬양과 예배로 시작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버블쇼와 성경공부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늘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편 아동부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부모특강을 가졌다.

제공 아동부

신앙아카데미

3월 25일에 전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돋기 위한 2018년도 신앙아카데미(부장 박종민 장로), 16개 성경반 1학기 과정이 개강된다.

“2년에 한 과목, 10년에 성경 한 권 수료”를 교육 목표로 하는 신앙아카데미는 교회사 과정을 신설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교우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의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의 전공과 경험을 교육과정에 잘 접목하여 좀 더 활기차고 충만한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

제공 신앙아카데미



2018년 영락 기독교사 대회



지난 2월 22일(목) 오전 11시 50주년 기념관 드림홀에서 '2018 영락 기독교사 대회'가 있었다. '화평하게 하는 기독교사'라는 주제 하에 선교부가 주최하고 학교법인 영락학원, 대광학원, 보성학원 산하 학교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최승도 목사(선교부)의 사회와 정천우 장로(선교부장)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을 전했다.

제공 영락학원 사진 원종석 기자

99회를 맞는 3·1절 기념예배



2월 28일(수) 1부 수요기도회는 여전도회 주관으로 3·1절 기념예배로 드렸다. 예배는 서승신 권사(제1여전도회 회장)의 인도로 시작되어 김희순 권사(제2여전도회 회장)의 기도, 정혜일 권사(제4여전도회 회장)의 성경봉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박재현 목사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사야 6:6~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끝으로 하근 은퇴장로의 선창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사진).

취재 박현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상담부 공개강좌



지난 2월 18일(주일) 3부예배 후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상담부 공개강좌가 실시되었다. 지동춘 부장 기도로 시작되어 상담원 및 교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적성장을 위한 영적 대화'라는 주제로 이강학 교수(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기독영성학)의 강의가 이어졌다. 예수님이 영적 대화에서처럼 영적 목마름과 열망에 초점을 맞추어야겠다고 참석한 상담원 및 성도들은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보는 시간이었다.

제공 상담부



2018년 권사회 현신예배



지난 2월 11일(주일) 찬양예배 시 2018년 권사회 현신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졌고, 신임권사 76명 임직(사진)이 있었다.

권사회 회장인 장경자 권사의 인도로 흥용희 권사(부회장)의 기도, 박규성 목사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하의 말씀이 있었다. 이어 이철신 위임목사는 신임권사 76명에게 권사로 택함 받음을 선포한 후, 신임권사들은 맡겨진 일에 충성할 것을 손을 들어 서약했다. 영상으로 지난 해 권사회 사역보고 후, 장경자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랑과 섬김으로 둘된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답사를 한 신임권사 대표 권정연 권사는 “초심을 잊지 않고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권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제공 권사회 사진 원종석 기자

2018년 신임구역장 세미나



목양부(부장 김원상 장로)가 주관한 신임구역장 세미나가 3월 9일(금) 오후 12시 45분부터 오후 3시까지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열렸다.

1부 강의는 박규성 목사가 ‘구역과 구역장’을 주제로, “지체는 여럿이지만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하며, “구역은 하나의 작은 교회임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구역장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신앙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2부 강의는 황재영 전도사가 ‘구역행정의 실제’라는 주제로 구역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박현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바로 잡습니다

지난 530호 이달의 말씀 3면에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 정신이었다고 믿습니다’는 구절이 중복되어 한 구절을 빼고, 영락의 율타리 46면 필자의 소속교구 ‘강북·도봉 교구’를 ‘노원교구’로 바로 잡습니다.



새문안교회와 탁구 교류전을 갖다



2016년 6월 창단한 영락탁구모임(회장 김일동 은퇴안수집사)는 지난 2월 새문안교회와 탁구 교류전을 통해서 친교를 도모함과 동시에 새롭게 위임목사님을 모시고 시작하는 교회 소식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작년엔 아현성결교회 및 신성북교회 와도 교류전을 가졌다.

제공 영락탁구모임

영락사회복지재단 어깨동무 캠페인



4월 8일, 베다니광장과 봉사관마당에서 영락사회복지재단(이사장 박남진 장로)은 후원자 모집 캠페인을 연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 부활절감사예배 일정

시설명	일시	말씀
합실어린이집	3월 29일 (목) 13시 20분	임평호 목사
영락경로원	4월 01일 (주일) 14시	
영락애니아의 집	4월 01일 (주일) 16시 30분	임평호 목사
영락보린원	4월 01일 (주일) 17시	
영락모자원	4월 01일 (주일) 17시	이성형 전도사
영락소규모요양원		
영락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은빛사랑채 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	4월 03일 (화) 11시	임평호 목사
영락노인전문요양원	4월 03일 (화) 14시 30분	
영락주간보호센터	4월 05일 (목) 11시	
영락어린이집	4월 05일 (목) 14시 30분	임평호 목사
영락지역아동복지센터	4월 05일 (목) 15시 30분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새가족 환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2018.02.01.	정다운	04	098
2018.02.04.	계형준	90	888
2018.02.11.	이승환	14	055
2018.02.11.	이순덕	15	000
2018.02.11.	김영자	14	055
2018.02.11.	정남훈	11	046
2018.02.11.	이윤주	11	046
2018.02.11.	주재경	10	065
2018.02.11.	박기연	06	000
2018.02.11.	어경선	08	000
2018.02.11.	최은미	12	045
2018.02.11.	마경희	09	040
2018.02.11.	박민수	14	045
2018.02.11.	최정호	90	888
2018.02.11.	김한나	90	888
2018.02.11.	이예림	90	888
2018.02.11.	손현정	90	888
2018.02.11.	이유성	17	053
2018.02.18.	김운성	04	098
2018.02.18.	표지숙	04	098
2018.02.18.	조주현	10	000
2018.02.18.	김사라	04	098
2018.02.18.	김귀용	04	098
2018.02.18.	김선용	04	098
2018.02.18.	김주용	04	098
2018.02.18.	최정우	04	009
2018.02.25.	김정희	04	098
2018.02.25.	유희정	04	098
2018.02.25.	박지운	04	098
2018.02.25.	최한윤	04	098
2018.02.25.	남정열	04	098
2018.02.25.	김충섭	04	098

등록일(2018.02.01.~03.11.)

교구: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000은 기동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2018.02.25.	서혜경	04	098
2018.02.25.	김은미	04	098
2018.02.25.	김지은	04	098
2018.02.25.	김효진	04	098
2018.02.25.	이영주	04	098
2018.02.25.	김찬규	04	098
2018.02.25.	김민규	04	098
2018.02.25.	최소은	04	098
2018.02.25.	김주하	04	098
2018.02.25.	박효원	04	098
2018.02.25.	김선아	04	098
2018.02.25.	남강우	04	098
2018.02.25.	박류건	04	098
2018.02.25.	김민하	04	098
2018.02.25.	최소민	04	098
2018.02.25.	남강현	04	098
2018.02.25.	박하임	04	098
2018.02.25.	박류찬	04	098
2018.02.25.	최서진	04	098
2018.03.04.	서환희	02	068
2018.03.04.	유시안	03	028
2018.03.04.	유주안	03	028
2018.03.09.	박시찬	04	098
2018.03.09.	박소희	04	098
2018.03.09.	김조수아	20	001
2018.03.11.	조승연	02	000
2018.03.11.	조혜연	02	000
2018.03.11.	이예준	07	043
2018.03.11.	오준서	02	000
2018.03.11.	정은혁	09	024
2018.03.11.	한제아	13	029



세례 입교 축하

세례 입교를 축하합니다



세례 입교(2018.03.11.)

신급	이름	교구	구역
입교	강예원	15	042
입교	강은혜	14	043
입교	강현지	14	043
입교	김정현	16	016
입교	김창범	02	005
입교	오형록	13	018
입교	김혜민	13	007
입교	김순숙	18	039
입교	최동현	18	039
입교	이미경	17	028
입교	홍세린	06	037
입교	신동화	09	053
입교	최서현	15	030
입교	신예원	09	005
입교	이정휘	80	888
입교	이해영	17	048

신급	이름	교구	구역
입교	이지은	80	888
세례	김윤태	05	055
세례	최은실	07	064
세례	손시온	04	082
세례	정지원	03	001
세례	이윤성	12	099
세례	송인	90	888
세례	최지희	04	009
세례	박재희	70	888
세례	엄건영	02	005
세례	문화인	70	888
세례	김진영	08	007
세례	허윤정	18	016
세례	허준	18	016
세례	허혁	18	016

신급	이름	교구	구역
세례	김지훈	70	888
세례	임소율	09	058
세례	박광래	07	056
세례	박유민	01	049
세례	안은송	70	888
세례	이예숙	05	060
세례	정세영	05	060
세례	윤길원	06	016
세례	박주희	10	004
세례	장정자	12	042
세례	하윤미	12	046
세례	김범규	70	888
세례	문채영	04	017
세례	류영희	80	888
세례	류제희	80	888

목회력

4月

- 1일(주일) 부활주일, 부활절 음악예배
- 6일(금) 연합권찰공부
- 8일(주일) 사회복지재단 헌신예배, 제직회
- 15일(주일)~21일(토) 한경직목사 기념주간
- 18일(수) 한경직목사 성묘예식
- 20일(금) 한경직목사 기념예식
- 22일(주일) 사회봉사주일, 새가족환영회
- 27일(주일) 심방준비회
- 29일(주일) 총동원전도주일



영락역사자료

2월 사료 기증 현황

기증자	기증일	기증사료
최성민 집사	2/4	1999년 고등부 하계수련회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리스도 공중전화카드
장경미 권사	2/4	1999년 사랑부 안내 홍보 팜플릿 1999년 2월~ 2000년 2월 사랑부 주보 외 14건 1999년 사랑부 교육 계획서 2008년 3월 영락교회 사랑부 창립 10주년 기념회보 사랑터 3 2005년 제 5회 교회교육원 세미나 소그룹 관련 문서
양성호 안수집사	2/4	2003년 12월 24일 베들레헴 찬양대 성탄축하예배 비디오테이프 3건
최항봉 집사	2/6	최항봉 집사 필사성경 신약 고(故) 추양(秋陽) 한경직 목사 장례 하관 예배 비디오테이프 외 시청각류 11건
무명	2/9	1995년 영락교회 50주년기념사업회 50주년 칸타타 관련 문서 영락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2006 선교 컨퍼런스 21세기 다변화 된 세계 속의 영락교회 선교전략 관련 팜플릿
임미자 원장 (영락유치원)	2/11	영락유치원 50주년 기념앨범
장경미 권사	2/11	2001년 12월 2일 대학부 주보 외 도서간행물류 1건 1998년 12월 24일 대학부 베다니새벽송 초대장 대학 2부 김경수 전도사 구약 성서 인물 연구 다윗 외 문서류 3건
김경이(타교인)	2/14	- 1970년 영락교회 창립25주년 기념패
장경미 권사	2/18	1991년~1993년 영락교회 장년부 강의문 외 문서류 33건 1991년 3월 25일~3월 30일 영락교회 고난주간 묵상 자료 외 도서간행물류 8건
장경미 권사	2/25	2000년 9월~2001년 6월 영락교회 대학부 성경공부 문서 5건 2000년 3월 4일 영락교회 학원과 민족 토요일 4시 모임 순서지 외 문서류 2건 1998년 7월 5일 영락교회 4호 사랑부 기도편지 2005년 1월 9일 영락교회 대학부 예배 리플릿

사료를 기다립니다

1. 교회에서 첫번째, 창간호, 1회, 1기 등에 해당하는 사료
2. 교회 모임들의 창립기 및 1기의 사료
3. 교회 간행물 1호 및 창간호의 사료
4. 그 외 교회에서 첫번째에 해당하는 사료

문의 : 역사자료실 ☎02)2280-0357

>> 영락화랑 : 아름다운 묵상

엠마오에서의 저녁식사(伦勃朗特)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 아보고 깜짝 놀란다. 또 한 명의 제자는 그 순간 놀라움을 넘어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다.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오에서의 저녁식사〉 3개 작품 중 첫 번째 작품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도 근심과 놀라움, 걱정으로 가득 차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자상하게 성경말씀을 풀어 설명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성경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가슴 벽찬 일일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복기도를 하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떠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신다. 이 그림은 그 찰나를 묘사한 것이다. 가까이 지내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연약한 두 제자를 아끼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예수님. 4복음서에서 만나지는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렘브란트도 그런 예수님을 분명 사랑했을 것이다.

최진희 편집위원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보셨나요? 다소곳하던 들풀이 봄바람 장난에 깜짝 놀라 일어나더군요. 지난 주일 베다니광장 모퉁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봄바람과 들풀, 들풀과 봄바람, 어느새 그 둘이 하나 되어 정겹게 춤추더군요. 때마침 2부예배 직후 많은 교우분들이 광장을 지나는데, 성령의 바람과 교우들이 정겹게 춤추는 듯 보였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 이것은 「만남」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달 특집 주제는 ‘부활과 선교’입니다. 기독신앙의 본질을 잘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과 영락교회 4대목표 가운데 하나인 ‘선교’를 함께 연결해서 좀 더 깊이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어느 독자 말씀에 따르면 독자들을 좀 더 머물게 하는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코너에 담고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코너에도 담았습니다. ‘부활과 선교’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와 「만남」 독자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봄 여러분의 삶이 곧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편집장 올림

>> 독자 의견

- 매월 만남지와의 만남을 통해 지면으로나마 교우들과 만나고, 좋은 글도 만나고, 함께 소통해야 할 귀한 정보도 만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영락교회의 영적 봄날을 기대합니다. 박종민 장로(고양·파주교구)
- 3월호 「만남」을 받아 페이지를 넘기면서 우선 편집체제가 많이 달라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시원하게, 그리고 젊어지려는 시도가 눈에 띠어 반갑다. 또 「만남」 발행 자체가 ‘공감’을 위한 ‘소통’임을 생각할 때 세 분의 특집 글은 비교적 훌륭했다. 그러나 특집 주제에 치중하다 보니 콘텐츠(?)가 다소 빈약해 보인다. 새로 시도한 ‘퍼즐’ 등은 독자들을 좀 더 머물게 하는 코너가 되라고 생각하면서 발전된 4월호를 기대한다.

김창배 집사(강동·송파교구)

▶ 독자 의견을 기다립니다. 홍보출판부 youngnak-hb@daum.net 02)2280-0197~8

만남

2018년 4월호
통권 531호

편집위원회

만남편집위원회 | 편집기획팀 | 김홍범 안집, 박선이 집사(선임), 박종하 집사, 우대권 청년, 임대현 집사, 조성일 집사, 최진희 집사

만남기자팀 | 강은진 집사, 목진경 청년, 박진현 집사, 박현옥 권사(선임), 오승현 청년, 윤진경 집사, 최윤미 집사(부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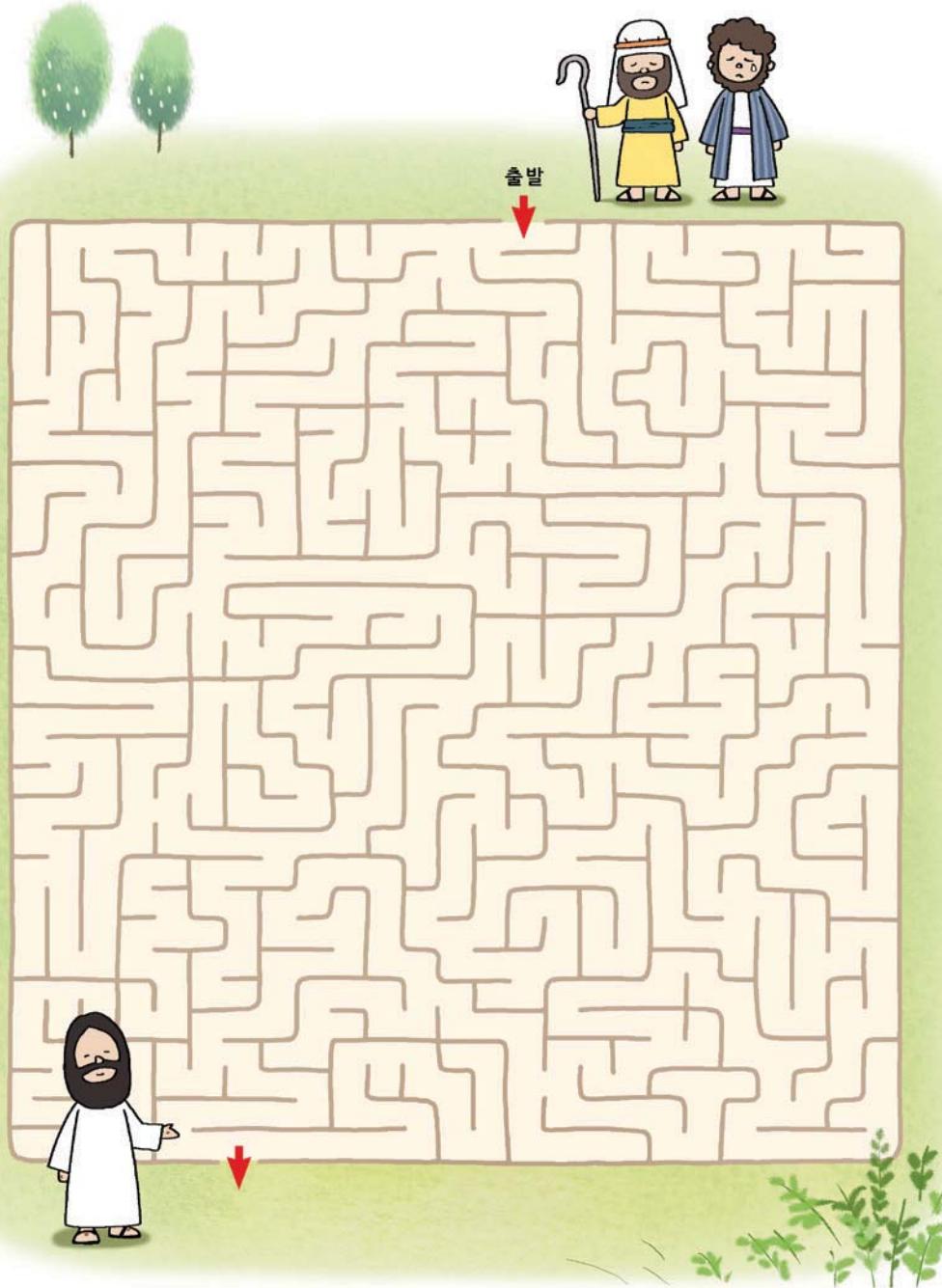
만남교열팀 | 김관용 집사, 김연경 권사(선임), 박인이 집사, 이광미 권사 | 디지털편집(준비)소위원회 | 만남클라우드팀 | 김광만 집사, 류정현 집사, 목진경 청년, 박종하 집사(선임), 오승현 청년, 우대권 청년, 디지털기자팀 | 김경옥 권사, 김수연 집사, 설재훈 안집(선임), 송경희 권사, 이동훈 집사, 인미 집사(부선임), 사진기자팀 | 김한기 집사, 박홍기 집사(선임), 원종석 집사, 유승현 성도, 이미혜 권사(부선임)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미로찾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절망과 슬픔에 빠진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눅 24:13~35) 예수님을 만나는 곳까지 가는 길을 함께 찾아봅시다.





야곱의 시대를 열어가다

- 사랑부부터 청년부까지, '자녀와 함께 하는 특별새벽기도회' 모습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렘브란트(1628, 종이판 위에 유채, 39×42cm)

엠마오에서의 저녁식사 (Supper at Emmaus)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눅 24:31)”